

# 끈 돈 못값는 인천시의 빛 좋은 빛탕감

## 재정건전화, 잘 되겠습니까

시가 털어냈다는 ‘2조 원 상당’ 빛  
‘은행권 차입’ 하루 이자만 10억 원  
금융부채는 찜뭇 줄여가고 있는데  
분양선수금 등 비금융부채 비중 커  
그것도 시장상황 따라서 변수 많아  
시 “본청 감소 추세… 성과로 봐야”

최근 인천시가 줄였다는 2조여 원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이 ‘비금융 부채’에 쏠  
린 것으로 드러나 ‘재정건전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할 은  
행권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다.

<관련 기사 3면>

7일 시에 따르면 2014년 13조1천685억  
원에 이르던 부채가 2015년에는 11조5천  
325억 원으로 1조6천360억 원이 줄었다.  
이들 부채는 은행권에서 차입한 금융  
부채와 분양선수금 등 비금융 부채로 나  
뉜다. 분양선수금은 부동산 개발사업자  
등에 되판 토지의 분양이 마무리돼 해당  
토지를 매각, 시가 받아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이 모두 완납됐을 때 부채가 없  
어진다. 그 전까지는 부채로 잡힌다. 201  
4년 인천시 부채 중 금융 부채는 10조4천  
903억 원이다. 비금융 부채 또한 2조6천  
782억 원에 이른다.

금융 부채는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 등  
이다. 이 돈은 시가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대출을 받아 하루 이자만 10억 원이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진정한



**장맛비에 팔당호로 밀려 내려온 쓰레기** 장맛비가 멈춘 7일 오후 하남시 팔당호에서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들이 청소 선박을 이용해 밀려 내려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팔당호 물은 인천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원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남=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재정건전화는 금융 부채를 먼저 갚았을  
때 실현된다고 한다.

하지만 2015년 시가 감축한 금융 부채  
규모는 4천508억 원에 불과했다. 총 부  
채 감축 규모의 30%에도 못 미치는 금액  
이다. 나머지 70%인 1조1천852억 원은  
비금융 부채다.

문제는 향후 비금융 부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 시가 매각  
한 토지가 그렇다. 상반기에 시가 인천경  
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관받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매각한 송도 8공구 A1·

A2·M2블록 등 3개 공동주택용지가 해  
당된다. 3개 필지는 대부분 사업시행자  
가 계약금 정도만 내고 땅을 매입했다.  
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사업이 시행  
중인 A1블록만 1차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개발업자들  
이 시장 상황이 나빠 분양에 실패할 경우  
시는 전세 땅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시의 부채 감축이 실  
효성보다는 ‘실적’ 위주로 한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시가 진정으로

재정건전화 실현 의지가 있다면 채무 상  
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래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실질적  
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채무 규모가  
계속 늘어나 시 재정건전성도 함께 악화  
됐다”며 “그렇지만 시 분청 채무의 경우  
10년 이상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공구만을 대체유수지로 활용할 경우 홍  
수 빈도에 따라 펌프 용량이 670마력 6대  
(빈도 50년)에서 860마력 8대(빈도 100년)  
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용역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  
개방형 수로를 남겨 둔 채 학익유수지를  
매립한 뒤 도시형 첨단물류단지로 분양  
할 경우 세입이 2천520억 원에 이를 것으  
로 예상했다.

시의 계획대로 매립과 복개한 학익유  
수지에 개발사업을 벌이면 수익은 더 늘  
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중구 신흥동과 남구 용현동 주  
민들은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5만3  
천400㎡) 매립 승인을 반려했던 시를 상대  
로 다음 주 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시  
청 앞 광장에서 집단 시위에 나설 계획이  
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 시, 학익유수지 하부 매립 방안도 모자라 홍수에방용 수로마저 콘크리트로 덮겠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빌미 검토  
복개 연계 개발하면 수익 더 늘어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빌미’로 남구 용현동 학익유  
수지 하부를 매립하는 방안도 모자라 홍  
수 예방을 위해 남겨 둔 수로까지 아예  
콘크리트로 덮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감사원 감사 지적 조치 사항인  
‘유수지 용량과 면적 축소’를 들먹이며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학익유수지 상  
부 지역 매립 면허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  
다.

<관련 기사 3면>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학익  
유수지 하부(면적 36만㎡)를 매립과 복개  
하는 내용을 담은 ‘갯골유수지 매립에 따  
른 대체유수지 검토 용역’ 보고서를 들어  
다보고 있다.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 워  
터프런트 기본설계(전체) 용역 착수 보고  
후속 조치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폭 200m인 학익

유수지 하부의 수로 폭을 좁게는 30m에  
서 넓게는 87m까지 남겨 둔 뒤 나머지를  
매립한다. 30~87m인 수로도 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용역에서 내용  
은 유수지 수로를 개방형으로 구상한 당  
초 계획에서 바뀐 것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 북측 수로  
만을 대체유수지(폭 340m, 길이 2천40  
m)로 활용하는 방안과 9공구 북측 수로  
와 송도 수로 전체를 유수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용역 결과, 9

### 社告

## 수원화성행궁서 청춘 댄스타임!

### 내달 13일 ‘제1회 전국 청소년 K-POP 댄스 경연대회’

한류(韓流)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  
로 미래의 예술 꿈나무들이 청소년  
에게 미래 한류 주역으로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1회 전국 청소년 K-P  
OP 댄스 경연대회’가 8  
월 13일 수원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  
집니다.

최근 ‘아이돌’로 대변되  
는 한류가 아시아를 넘  
어 유럽과 중남미 지역  
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  
습니다. 한류 열풍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  
인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  
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조

성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호일보가 개최하  
는 ‘제1회 청소년 K-POP 댄스 경연  
대회’는 문화 주류인 청소년들의 사

기 진작에 기여하면서도 그들의 끼  
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토  
양이 될 것입니다.

‘제1회 청소년 K-POP 댄스 경연  
대회’는 이미 발표된 K-POP 퍼포  
먼스의 재연 완성도를 겨루는 ‘커  
버댄스’ 부문과 적합한 창작 안무  
를 경쟁하는 ‘리커버댄스’ 부문으  
로 나뉘어 경쟁과 소통이 공존  
하는 청소년 화합의 장이기  
도 합니다. 정조의 효심과  
왕도정치 사상이 결집된  
수원화성행궁(사적제4  
78호)에서 펼쳐지는  
‘제1회 청소년 K-PO  
P 댄스 경연대회’에 많  
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역사의 숨결을 느낌과 동시  
에 다채로운 축하공연, 커버댄스 플  
래시몹, 커버댄스 스쿨 등 부대행사  
도 즐기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장소 | 8월 13일(토) 오후 7~10시 수원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                                                                                                   |                                                                                                                                                                                    |
|-------|-------------------------------------------------------------------------------------------------------------------------------------|------------------------------------------------------------------------------------------------------------------------------------------------------------------------------------|
| 참가 부문 | <div> <div>■ K-POP 커버댄스 경연:팀전/기존 발표곡과 안무 재연</div> <div>■ K-POP 리커버댄스 경연:팀전/기존 발표곡에 창작 안무 적용</div> <div>■ 공연 소요시간:4분 이내</div> </div> |                                                                                                                                                                                    |
| 참가 자격 | 13~19세 청소년부 댄스팀(5~10명)                                                                                                              |                                                                                                                                                                                    |
| 참가 접수 | 기간                                                                                                                                  | 8월 5일(금)까지                                                                                                                                                                         |
|       | 방법                                                                                                                                  | <div>기호일보 홈페이지(www.kihoilbo.co.kr) 방문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iho0001@hanmail.net)로 접수</div> <div> <div>■ 이메일 접수:신청서 접수 시 동영상 파일 첨부</div> <div>■ 유튜브 동영상 접수:신청서에 URL 기재</div> </div> |
|       | 본선                                                                                                                                  | 예심을 통과한 20개 팀 개별 통보(8월 8일)                                                                                                                                                         |
| 문의    | 기호일보 경기본사 ☎031-898-6767~8, 사업국 ☎032-761-0007                                                                                        |                                                                                                                                                                                    |
| 주최/주관 | 경기관광공사 / 기호일보, (사)문화예술발전협의회                                                                                                         |                                                                                                                                                                                    |

기호일보사

|              |                                           |
|--------------|-------------------------------------------|
| 기호<br>INSIDE | 연중기획 <b>큰나무, 큰사람</b> -  장수동 만의골 은행나무 ▶ 17 |
|              | 인천Utd, 빛고을서 3승점 따낼까 ▶ 16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언론 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읽기문화 강연회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 인천 일선학교 37%만 ‘사고 예방’ 비상벨 있다

시교육청 안전관리 주의 권고뿐, 예산은 대부분 학교부담  
손철은 시의원 지적... 이 교육감 “안전시설 예산확보 지원”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벨’이 인천은 학교 10곳 중 4곳도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손철은 의원(새누리·부평구3)은 교육행정 관련

시정 질문에서 “인천지역 학교 비상벨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학교 500곳 중 186곳(37.2%)만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비상벨은 교육부가 학교 내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상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예산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비상벨은 학교폭력·집단따돌림 뿐 아니라 수상한 외부인 출입 등 학생들이 교내에서 각종 위험을 겪었을 때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장치다.

손 의원은 또 비상벨이 설치된 학교에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내 비상벨 설치 등 교내 안전관리 시스템에 주의하도록 권고했을 뿐, 설치하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부담했다.

올해도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운영비 등으로 교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시범학교 등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교내 비상벨 설치 학교 비율은

지난 6월 기준 506곳 중 206곳(40.7%)으로 지난해에 비해 조금 늘었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비상벨뿐 아니라 고화질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도울 것”이라며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선박화재 민관군 합동훈련 유선 선박화재를 대비한 민관군 합동 훈련이 7일 인천해 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 앞 해상에서 열려 해경구조대가 화재가 발생한 선박에서 탈출한 승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 시작 정기열 의장 등 院구성 마무리

여야 상임위 7:4 배분 그대로

예결위·교육위 위원 수 증원

15일 본회의서 위원장 선임

경기도의회가 신임 의장단을 최종 선출하고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2년간의 후반기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도의회는 7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후반기 의장에 3선의 더불어민주당 정기열(안양4) 의원을 최종 선출했다. 정 신임 의장은 재석의원 127명 가운데 120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의장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경기도를 멋지게 열어가겠다”며 “자치와 분권, 연정(聯政), 경제민주화, 문화, 평화 다섯 가치를 하나씩 실현해가며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의회는 또 부의장에 더민주 김호겸(수원6)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식(평택3)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여야는 전반기와 동일하게 후반기에도 더민주가 총 7개(운영·기재·문광·복지·건교·도사·교육)의 상임위원직을, 새누리당은 4석(경제·행정·농정·여가)을 맡기로 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전반기와 같이 더민주가 위원장직을 맡고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1년씩 교대 배분하는 방안이 유지된다.

더민주는 당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더민주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관철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후반기 정당별 의석수 변화에 따라 전체 상임위원장 비율 재배분(6대 5로 전환) 요구하며 맞불을 놓은 데 따른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에는

변화가 생긴다. 의원들의 참여 수요가 높은 예결위와 교육위는 정원이 각각 26명(전반기 21명)과 19명(전반기 15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경제위와 문광위, 건교위는 각 1명씩, 보건복지위는 2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됐다.

더민주 조승현(김포1) 수석부대표는 “도교육청은 인력이 많고 방대한 예산 등 처리해야 할 안전이 상당해 현재의 정수로는 꼼꼼한 심의와 견제가 어렵다”며 “예결위 역시 마찬가지로 연 30조 원이 되는 예산을 한정된 기간에 보좌인력도 없이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커 정원 수를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8일까지 이들 동안, 새누리당은 7일 하루에 한해 의원별 희망 상임위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을 배분한 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위원회별 상임위원장을 최종 선임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7일 경기도의회는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기열(가운데) 의원과 부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호겸(오른쪽) 의원, 새누리당 염동식(왼쪽) 부의장이 손을 맞잡고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홍승남기자 nam1432@kihoilbo.co.kr

## 대체 매립지 용역, 개별·공동사용 포괄 추진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3개 시도의 개별 또는 공동 사용 여부를 포괄해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7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인천시가 올

해 말까지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대체매립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지역 사회에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가 각자 사용하는 개별 대체매립지

용역 추진을 요구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과 공동 사용을 모두 포괄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지역사회와의 반발을 감안해 용역 추진 과정에서 ‘개별’과 ‘공동’이란 표

시 발표로 추진단 회의 공개  
“내년 상반기 이후 용역발주”

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추진단이 진행하는 용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추진단 회의 내용은 개별 위원들이 언론이나 지역사회에 알리는 방식보다 인천시가 공식 발표

하는 형태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인천시가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추진단 안건으로 올리게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말이나 중반기 정도에 약 2년 정도 걸리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남 지사, 올 상반기 직무성적표 보니

## 경기도민 51% “잘 한다” 21% “못한다”보다 앞서

60대 이상 압도적 지지

남경필 경기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경기도민 절반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1%는 남 지사가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도 긍정률 51%로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

남 지사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민은 21%에 그쳤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였다.

한국갤럽은 도민 4천909명(유효표본), 전국 표본 2만2천97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휴대전화 RDD 조사(집전화 RDD 보완)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전국적으로는 김기현 울산 시장이 17명의 시·도지사 중 1위를 차지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민 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2위는 김관용(63%) 경북지사다. 반면, 최하위는 긍정률 37%로 최저치를 얻은 홍준표 경남지사였다.

이런 가운데 남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중 8위로 중위권을 기록했다. 여야 차기 대선 잠룡으로 평가받는 시·도지사 중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62%)가 앞섰고, 원희룡 제주지사(53%), 박원순 서울시장(51%)과는 비슷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성적표와 비교할 때 남 지사의 경우 다른 3명의 시·도지사의 긍정률이 하락세를 타는 동안 변동 없이 지지도를 굳혔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박 시장은 작년 하반기 평가 대비 긍정률이 4%p 하락했다.

남 지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야당 지지자들의 긍정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앞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 44%, 국민의당 55%가 ‘잘 하고 있다’고 답했고, 반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여론은 각각 30%, 22%에 그쳤다.

남 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층은 60대 이상(61%)이 압도적이었다고 19~29세가 48%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농·임·어업(64%)과 무직·은퇴(62%)에서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 청정지역에서 자란 건강한 농특산물

## 진안고원의 맛과 정을 담다








**진안농협 임원 현황**

조 합 장 : 김문중  
 상임이사 : 김용철  
 감 사 : 김창주, 허남규  
 이 사 : 전정용, 허준석, 안기조, 구은서, 이성래, 김명갑, 손동규, 성태근  
 사외이사 : 백인애

(우)55422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50 대표전화 063) 433-1021 FAX 432-0828

# 사회적 약자·서민, 쪼그라든 복지 예산·치솟은 공공요금에 피눈물

## 인천시 재정건전화, 시민을 고통 속에 내몰았다

강도 높은 긴축재정 탓에 예산 삭감·사업 보류 줄줄이 이어져  
이한구 시의원 “고혈 짜낸 것”... 시 관계자 “재정효율화 차원”

‘민선6기 유정복호(號)’는 출발 전부터 인천시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유 시장은 임기 초부터 재정건전화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시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공약사항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아예 생각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긴축 방

침에 기존 사업들은 뒷서리를 맞았다. 예산 삭감과 사업 보류가 그것이다. 결국 시의 유례없는 긴축정책에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 되고 말았다.

그것도 ‘사회적 약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시의 부채 감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회복지 분야다. 다수의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다. 이때 중앙

정부도 한몫했다. 사회복지 분야 유사·중복 사업 폐지 지침을 전달한 것이다. 때를 만난 시는 과감하게 이 분야 예산을 삭감했다. 시는 정부 방침에 한술 더 떴다. 수년 전부터 지역의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도 재정난을 ‘핑계’로 어느 순간부터 지원을 끊었다.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2015년 5억여 원이었던 것이 올해 2억5천여만 원 대폭 삭감됐다.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비도 6천400만 원 전액이 군·구로 넘어갔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5억6천여만 원에서 2

억2천여만 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도 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는 17억여 원이 감액됐고, 출산용품 지원사업 2억8천800만 원과 저소득 노인 목욕비 5억여 원은 시 예산에서 모두 없어졌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사이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4천500원이었던 개인 주민세를 두 배가 넘는 1만 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쓰레기 봉투값을 비롯해 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을 줄줄이 올렸다. 시의 부채 감

축 정책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꼴이 됐다.

상황이 이런데 시는 성적 부진과 재정 악화 등 총체적 난국으로 팀 해체 압박을 받는 인천 유나이티드에는 온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시 본예산 29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46억 원 등 올해에만 총 75억 원의 시비를 쏟아부을 생각이다. 시민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시가 밝힌 부채 감축 규모를 섣뚱 받아들이 수 없다는 뜻이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시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출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 또는 감액했다”며 “‘재정건전화’라는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고혈’만 짜낸 것이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일부 복지사업 중 유사·중복 또는 추가적 성격으로 지원되는 경비들을 복지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조정하게 됐다”며 “절감재원은 맞춤형 복지급여 확대에 따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인천시가 매립과 복개를 추진하고 있는 학익유수지 하부(오른쪽)와 매립을 반대하고 있는 유수지 상부 공유수면.

최만규 기자 cmg@khihoilbo.co.kr

## 감사원 들먹이며 허가 반대 ‘한글 못 읽나’ 비웃음 당해

### 인천시 학익유수지 상부 매립 ‘이중잣대’ 논란

인천시가 학익유수지 하부에 매립과 복개 방안까지 검토하면서도 민간업자가 추진 중인 상부지역 매립계획에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

시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2012년 7월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5만 3천400㎡)을 매립해 공원 및 유통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더라도 유수용량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에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승주종합개발(주)은 분당 520㎡ 규모의 펌프시설 1대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매립승인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상부를 매립할 경우 유수지 전체 용량이 100만㎡에서 93만8천㎡로 줄기 때문이었다.

시는 그해 9월 ‘유수용량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의 이외에 대해 감사원에 문의했다. 그 결과 유수용량에는 ‘유수지 용량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포함한다’는 감사원 측의 구두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감사원 측의 답변을 토대로 상부 매립은 유수지 면적 축소를 가져와 공원 및 유통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수지 인근 남구 용현5동 주민들과 민간사업자는 시의 주장은 일토당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감사원 측도 유수용량에 면적도 포함한다는 시측의 해석에 “인천시 공무원들은 (공개돼 있는 조치사항) 한글도 못 읽느냐”며 비아냥

“유수지 용량에 면적 포함...”

답변서 받았으며 승인 거부  
감사원 ‘엉뚱한 해석’ 입장  
하부 매립·복개 ‘올인’ 대조

거리는 투다.

시는 2014년 4월 유수용량 유지방안은 관계 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유수지 기능의 퇴보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스스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부 매립으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10여 년간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길이라고 권익위의 조정서에 서명했다.

주민대표들은 2011년 4월과 20

13년 6월 각각 주민 1천302명과 2천625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장과 권익위에 매립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던 터였다.

주민들은 시가 어처구니없는 구실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친수공간을 조성한 답시고 354억 원을 투입한 학익유수지 하부를 10년 만에 다시 매립하고 복개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 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2005년 3월 친수공간 232억 원과 수로 정비 119억 원을 들여 상부를 유수지로 조성했다.

사실 시의 학익유수지 조성사업은 기본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 수리 검토까지 민간사업자인 승주종합개발이 진행했던 매립사업을 가로챈 것이었다.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khihoilbo.co.kr



## 새누리 인천시당 지방의회 의장선거 파행 조사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최근 지방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을 두고 조사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당 결정에 불복해 야당과 협의할 경우 해당행위로 간주해 처리한다는 공문을 각 지역에 발송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중구·동구·옹진군의회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무시한 채 의장 자리를 놓고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였던 것. 인천시의회에서는 새누리당 시의원 총회에서 제갈원영 의원에게 낙마한 노경수 의원이 본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1차 투표에서 동수를 이뤄원래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기초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등 장(長)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야당과 연합하는 등

의 이전투구가 벌어지기도 했다.

중구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임관만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야권과 손잡고 2명에 불과한 더민주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켰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역시 7명이 활동하는 동구의회에서는 조선의 비례대표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았다. 동구의회도 새누

리당 4명, 더민주 3명으로, 당초 새누리당 내부에서 예정했던 의장 후보 대신 야권에 부의장을 조건으로 내건 후보가 의장으로 당선됐다.

옹진군의회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을 맡는 대신 후반기에는 의장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던 군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면서 의원들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 추억의 송도유원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천의 문화와 역사, 시민의 추억이 깃든 송도유원지가  
2020년, 인천의 자랑스러운 복합테마파크로 다시 돌아옵니다.

2020  
송도테마파크  
부영그룹이  
함께합니다

**퍼블릭파크** 역사·문화의 거리

시티워크, 세계음식거리, 퍼레이드거리, 중정마켓, 인천개항기념광장, 야외무대 등

**어뮤즈먼트파크** 도시의 숲

인천스카이뷰, 실내테마파크, 4D드라큘라, X롤러코스터, 숲속체험코스터 등

**워터파크** 해양 어드벤처

인공해변, 실내워터파크, 숲속체험유수물, 갯벌체험이벤트장, 호텔, 리조트 등

**사랑으로**

# “브레인시티 성공 추진... 역동적 도시로”

공재광 평택시장, 민선 6기 2주년 기자간담... 시장 운영 평가 내년 삼성 반도체 공장 15만 명 고용... 시민 삶의 질 높일 것

평택시는 7일 종합상황실에서 언론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뤄 낸 민선6기 2년간의 성과와 향후 시장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재광 시장은 “평택의 꿈을 이뤄 가기 위해 민선6기가 출발한 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렀으며, 오직 평택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달려 왔

다”고 말하며 민선6기 출범 2년간의 성과와 향후 시장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2년여 동안 표류하다 재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브레인시티 사업, 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조기 착공 등은 기쁘고 놀라운 성과다. 시는 각종 개발 호재로 다른 지자체들의 부러움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

으며, 평택의 가치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6기 출범 초창기부터 브레인시티 재추진을 위해 경기도지사와의 협약, 시민과의 소통, TF 구성 등의 노력 끝에 지난달 20일 경기도는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고 2014년 4월 내린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철회했다”며 “브레인시티 사업은 앞으로 2단계로 나뉘 추진하고, 공공SPC를 구성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 관할로 결정했다. 매립

지의 96%이며,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67만9천589.8㎡가 새로운 평택 땅으로 귀속됐다”고 말했다. 공 시장은 “지난해 5월 착공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는 2017년 상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곳이 가동되면 4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며 “TF를 구성해 23개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 “민선6기 전반기에는 시민 모두가 희망을 꿈꾸면서 내 고향 평택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



공재광 평택시장과 민선 6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낄 수 있도록 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면, 후반기는

도시 발전과 품격에 걸맞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여 따뜻한 평택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hihoilbo.co.kr

## “양성평등 실현이 도시 경쟁력 좌우”

화성, 여성친화도시 선포  
채 시장 “핵심 과제로 추진”

화성시는 7일 오후 2시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채인석 시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내빈과 여성단체 회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스와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시상식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김정운 여러가지 문제연구소 소장이 ‘서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시상식에 앞서 진안동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의 7080 통기타 공연이 펼쳐졌으며,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인권 보호에



쓴 유경순(남양동)씨 등 6명에게 양성평등상이 수여됐다.

또한 양성평등발전유공자로 김명신(반월동)씨 등 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한동열 여성단체 전임 회장 및 김두영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이어 채 시장은 사회적 배려 계층을 포함한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선포문을 낭독했다.

이에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

의 지지 선언문 낭독과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스 대표의 참여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또한 4월 500여 명의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브랜드 네이밍 ‘여성이 빛나는 화성시’와 BI를 알리는 시간도 진행됐다.

채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은 우리 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시민이 참여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발부터 빠격

의장 김유식·부의장 이상호 선출  
더민주, 내부서 이탈표 나오자  
“새누리당과 야합” 집단 퇴장해  
김의장은 탈당 선언 파행 예고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유식 의원,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이상호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 의원들이 의장단 감투 싸움을 벌인 지 9일 만이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직의원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장 선거를 실시, 김 의원이 20표를 얻어 의장에 올랐다. 더민주 경선으로 뺀 박문석 의원은 12표를 얻는 데 그쳤고, 같은 당 자관근 의원은 1표를 받았다.

더민주의 김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 16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4표의



김유식 의장

이상호 부의장

내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더민주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김 의원 간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김 의장은 선거 직후 더민주 탈당을 선언해 후반기 의회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치러진 부의장 선거는 17표를 얻은 김 신임 의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분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리당략에 맞서 굴하지 않으며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용납치 않고 권위 있는 의회, 균형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더민주협의회의가 의총에 불참하고 당론을 거부하는 김 의원을 제명하면서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자유 투표로 선출하자는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파행이 지속됐다. 성남시의회는 2012년 제6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의장에 당선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시의회는 ‘닉달 동안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썼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c@khihoilbo.co.kr

## “범죄 피해자에 폭넓은 지원을” 하남시의회 문외숙 의원 조례 발의

하남시의회 문외숙(새)의원이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치료비 등을 폭넓게 지원해 조속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되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 500만 원 이내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등이다.

문외숙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

와 묻지 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 사람도 지원되므로 범죄 예방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hihoilbo.co.kr

### 부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위원장 선출 완료

부천시의회는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재정문화위원회장은 이진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장은 이준영 의원, 도시교통위원회장은 이동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장은 최성운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상임위원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90만 부천시민과 부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선배·동료 의원과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 최대호 前 안양시장 지역위원장 경선 도전

더민주 안양동안을 출마

최대호(58)전 안양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에 도전했다.

최 전 시장은 7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에서 안양지역 3개 선거구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는 더민주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2017년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선두에 서겠다”고 했다.

이어 “더민주의 안양동안을 지역을 관리당원 100% 여론조사로 경선 방식을 결정했다”며 “저는 당의 의결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지역위원장 후보로 경선에 당연히 임하겠다”고 했다.

최 전 시장은 2014년 6월 안양시장 선거에서 13만8천908표(49.83%)를 얻어 13만9천838표(50.16%)를 획득한 이필운 현 시장에 930표차로 패했다.

안양=이정택 기자 jtleef151@khihoilbo.co.kr

유람선, 도선 탑승시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 (시행일 2016. 1. 25.)

# 신·시·모도 장봉도 여행시 신분증 꼭 지참

탑승객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5조)

**주민등록증**

해 우리

XXXXXX-XXXXXXX

000시 000구 000동

2016. 1. 25

000구청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학생증, 청소년증, 건강보험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확인 증명서

• 단, 미취학아동(유아)은 동반한 보호자(부모, 친족, 교사 등)의 신분확인으로 갈음

**세종해운(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847번길 55 문의전화 ☎032)751-2211



**조선 의원들, 말조심함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조선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조선의원들의 의정활동 도중 나온 일부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내부단속 차원에서 소집됐다. /연합뉴스

## 남경필·안희정, 수도 이전 공감대

여야 차세대 주자 한목소리… 내년 대선 정국서 쟁점화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 비즈니스로 충분” 긍정적 평가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51)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52)충남도지사가 7일 세종시 수도 이전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50대 기수’들을 중심으로 여야의 차세대 주자들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수도 이전 문제가 개헌론의 이슈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 대선 정국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원’인 충청 표심을 의식한 경쟁이 벌써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

가 내놓고 있다.

먼저 수도 이전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남 지사다. 그는 지난달 양주시에서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서 “국회는 물론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도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안 지사는 “수도권 이전 문제는 사실 노무현정부 때 저희가 입안했던 행정수도 주장을 남 지사도 받아들이신 것”이라며 수도 이전에서는 “원조”임을 우회적으로 부각시켰다.

안 지사는 “과거 수도 이전이 위

험이라고 판결한 현재의 판결은 마음에 걸린다”면서도 “당시 현재는 관습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의 상식이 바뀌었으니 판결도 바뀔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남 지사 측도 안 지사의 이런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더욱 수도이전론에 박차를 가할 기세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남 지사로서도 본인이 꺼낸 어젠다에 안 지사가 공감을 표해 준 것 아닌가. 환영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양한 계기를 통해 안 지사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명의 광역단체장이자 대권 주자인 더민주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5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무현정부가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은 잘못했다고 본다.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 족하다”며 수도이전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시장이 수도 이전에 찬성하신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일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 내고 남 지사와 안 지사를 동시에 언급하며 “대권욕과 대한민국 수도 이전을 맞바꾸지 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웠을 때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서 ‘충청인을 현혹하는 공약’이라 혹평한 남 지사가 어떤 연유로 입장이 뒤바뀌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남 지사의 말대로 수도권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 ‘당권 도전’ 추미에·송영길 도의회 찾아 유급 보좌관-지방분권 충실 이행 포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 추미에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숙원인 ‘유급 보좌관제’와 ‘후원회 제도’ 도입 추진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추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도의회 더민주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경쟁자인 송영길 의원도 참석해 책임자론을 내세우며

한 표를 당부했다.

추 의원은 더민주 도의원들과 가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진정한 통합은 계파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가는 것 역시 통합의 의무다”라며 “구체적 필요과제로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후원회 제도를 당론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양근서(안산)의원의 질문에 “두

가지 방안은 제 소신과 같다. 약속 드려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입한 지방자치제를 우리는 그동안 수정 없이 해 왔다”며 “이제 지방의회를 내실화할 또 다른 때가 왔다.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를 통해 수입·지출이 투명하니 국회가 맑아졌다. 지방의회도 그래야 한다”며 “(보좌관제·후원회제)두 가지 방안은 제 소신과도 같다.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길 의원도 당대표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4년간 인천

시장 경험을 기초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내고, 인수위부터 기초·광역지방자치 대표들을 참여시켜 분명한 지방분권을 실행하는 정권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능한 경제정당, 남북관계 대화 국면 전환, 지방자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더민주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나선 이인주 국회의원도 자리해 “도의회이 중심이 되는 도당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 ‘더 좋은 쥐뿔’ 만들듯 경제위기 선제적 돌파

박 대통령, 수출 유망상품 창출·투자 활성화 방안 역설

박근혜<열굴>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회복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유망 상품을 창출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서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더 좋은 쥐뿔론’을 언급하면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 (위기를)극복하고 추월하는 길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더 좋은 쥐뿔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 속 한가운

데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 놓을 것”이라는 미국의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의 글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쥐뿔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올웬스라는 쥐뿔 회사는 한번 걸린 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예쁜 모양의 위생적 플라스틱 쥐뿔으로 만들어서 발전시켰다”며 “이런 정신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고 덧붙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수출 회복 과제로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회복 노력 강화 ▶혁신을 통한 소비재의 글로벌 프리미엄화 ▶신산업의 수출 주력산업화를 강조했다.



무리 등을 주문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 현장에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할랄·코스(이슬람과 유대교 율법에 의해 허용된 음식)시장, 반려동물 산업, 부동산 서비스,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 업종·기술 간 융·복합 추진을 통해 새로운 유망 수출상품을 창출하고, 유망 소비재의 글로벌 프리미엄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20대 첫 고위 당정협의회**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20대 국회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기에 앞서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친박 이정현, 당 대표 3번째 주자로

새누리당 친박계 3선 이정현(전 남 순천)국회의원이 7일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남 곡성 출신의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뒤 박근혜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수석·홍보수석 등을 지냈으며 당 최고위원을 거쳤다. 이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은 비박계 3선 김용태 의원과 친박계 5선의 이주영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당대표가 되려는 목적은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

그는 “우리 정치에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 부수겠다”며 “‘서번트 리더십’(섬기는 리더십)으로 국민과 민생을 찾아가는 당을 만들기 위해 당의 구조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생 문제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고질병인 권력에 출세기하는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의 정치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그동안 전대 경선 과정에서 돈빔·공약빔·사랍빔을 지며 줄 세운 바로 그들에게 공천을 주고, 당직을 꾸리고,



또 다른 계파를 만드는 것들이 쌓여 분열과 분파의 큰 원인이 됐다”며 이번 경선을 앞두고 별도의 캠프를 꾸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 여의도 중계탑

택지 개발로 ‘아양도로’ 확장 시급  
김학용 “국고 5억 지원 예산난 송통”

김학용(새·안성·사진)국회의원은 아양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성시 옥산동과 대덕면 내리를 잇는 총연장 2.4km 왕복 2차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2018년까지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이 도로는 2017년 말 대규모 택지개발이 끝나 총 6천4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착공하고도 사업비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어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시의 요청에 따라 행자부 장관과 당국자 등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학용 의원은 “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통행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hihoilbo.co.kr



누산~마근포 도로 교통정체 심각  
홍철호, 확·포장 공사비 7억 확보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사진)국회의원이누산~하성 마근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

7일 홍 의원에 따르면 누산~마근포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6.9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4개 구간 중 2개 구간(양택리~마곡사거리)만 공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2개 구간은 시비 부족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나머지 2개 구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 주변에는 67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음에도 도로 폭이 협소해 교통 정체가 심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은 물론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오랜 기간 하성~누산 간 도로가 협소해 하성 주민은 물론 기업인들도 불편함을 겪어 왔는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와 더불어 예정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로 납부 추진  
조정식, 할부이자율 1.5%로 제한도

20대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사진)의원은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때 발생하는 할부 이자율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 중 65.6%가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더라도 이때 발생하는 최고 2%에 달하는 이자 역시 대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시에 큰 금액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 부평 美기지 부영공원 을안 개방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의 연내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3보급단 수송철로를 지역의 명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사진)국회의원은 7일 “지난 5일 국방부 각 업무별 담당자들과 실무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영공원 개방이나 3보급단 철로 트램 설치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토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부영공원과 관련해서 정 의원은 “공정률 92.7%에 달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예정대로 10월 중 마쳐지게 되면 곧바로 개방하고

록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S-OFA환경분과위에서 진행 중인 환경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천시가 우선 반환을 요청한 부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반환을 진행시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코레일이 부평역에서 화물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래로 수송량이 급감하고 있는 3보급단 수송철로에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민간 상생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도록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학자금 대출금리  
2학기부터 0.2%p ↓

당정 “연 165억 경감”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오는 2학기부터 대학교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연간 165억 원 경감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학생 약 100만 명도 대출금리 소급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회의 참석 의원들은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이처럼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근본적 대책이 아닌 만큼 저소득층 청년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을 정부에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진료  
내과, 내과, 심장, 관절·척추, 장기이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인천 서구청 인근 ☎ 대표전화 1600-8291

## 경기지역 분양 소식



## 상암DMC까지 차로 5분이면 OK

### ■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이 고양시 덕양구 향동택지 개발지구에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의 견본주택을 8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향동 호반베르디움은 향동지구 B2~4구역에 지하 2층·지상 29층에 25개 동, 전용면적 70~84㎡ 규모로 총 2천 147가구의 대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70㎡ 1천37가구 ▶84㎡ 1천11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30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며 계약금 10%에 중도금은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향동지구는 서울 상암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상암DMC생활권과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교통망은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깝고, 남쪽에 수색로 버스중앙차선을 이용해 광화문·종로 등 도심업무지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에 마포 상암·은평구·서대문구 등 서북권 실수요자의 관심이 매우 높다.

B2·3·4구역은 각각 특색을 갖춘 가운데 B2구역은 유치원 예정부지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봉산으로 둘러싸여 뛰어난 조망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접 초등학교 등 교육인프라도 우수

B3구역은 초등학교 용지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자녀가 길을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B4구역은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옆에 있으며 중심상업지구와 가깝다.

또한 B3·4구역 원편으로 향동천을 따라 수변공원이 계획돼 입주주민들의 여가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의 구조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관상형 설계로 일조권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주방 팬트리, 안방 워크인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주민회의실 등이 다양하고 알차게 마련된다.

주차장은 100% 지하화해 지상에는 차가 없는 쾌적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전 주차장의 30% 이상이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계획됐다.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과 받고 당첨자 발표는 B4구역 20일, B3구역 21일, B2구역 22일 등 순차적으로 한다. 계약은 27~29일 사흘간 진행되며 입주예정일은 2019년 7월이다.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5번지(고양경찰서 인근)에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 합리적 분양가·중소형 면적 인기

### ■ 동탄2 제일풍경제 에듀&파크

‘제일풍경제’ 브랜드로 유명한 제일건설㈜이 8일 ‘동탄2신도시 제일풍경제 에듀&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동탄2신도시 제일풍경제 에듀&파크’는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 A96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0층 9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76㎡ 총 624가구로 이뤄져 있다.

상반기남동탄 청약시장은 1순위에서 만 무려 5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북동탄에 비해 합리적인 분양가와 실수요자들이 살기 좋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동탄2신도시 첫 분양인 ‘동탄2신도시 제일풍경제 에듀&파크’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동탄2신도시에서 희소성이 높은 전용면적 59·76㎡로 구성돼 있다.

단지 설계 또한 실수요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여성 특화시설로 꾸렸다. 단지 내 어머니들의 티타임과 담소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맘스카페와 아이들의 학원 통학 및 셔틀버스 등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키즈 스테이션이 설치될 예정이다.

가구별로도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10cm 높은 천장과 채광, 통풍, 조망감을 높인 4베이 및 맞통풍 설계로 보다 넓은 개방감을 가져다준다. 전용면적 59㎡에는 넓은 공간 활용을 위해 팬트리를 설치하며, 전용면적 76㎡에는 알파룸

### 맘스카페~키즈 스테이션 설치 아이 셔틀버스 등 안전이용 지원

설계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단지는 인근 동탄호수공원 이용이 쉬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동탄호수공원은 주거·문화·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수변친화형 문화상업 복합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정부지도 조성이 계획돼 있다. 단지 내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야와 유아놀이터와 연계한 별동 어린이집이 들어서 안전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동탄순환대로가 올해 개통 예정에서 교통망 개선 효과도 기대되며, 단지에 가까이 있는 장지나들목(예정)과 동탄대로를 이용하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입이 편리하다. 평택~수서 간 고속철도인 SRT(2016년 하반기 개통 예정)와 GTX(2021년 개통예정) 복합 환승역인 동탄역을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분양 일정은 13일 1순위 청약, 14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하며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다. 청약 계약은 26~28일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방교리 29-1번지에 조성된다. 분양 문의:☎1522-1432 화성=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 생활인프라·풍부한 녹지 ‘동시에’

### ■ 남양주 한양수자인 2차

㈜한양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한양수자인 1차에 이어 2차분 291가구를 분양한다.

다산신도시 C-2블록에 조성되는 ‘한양수자인 2차’는 지하 1층·지상 15층에 6개 동 291가구다. 전용면적 ▶97㎡ 280가구 ▶112㎡ 11가구다.

다산진건 한양수자인 2차는 사통팔달 시원하게 뚫려 있는 도로와 지하철역 이용이 편리한 강남생활권 단지다. 2022년 개통 예정인 8호선 연장 다산역을 도보거리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잠실역에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북부간선도로와 강북강변도로 등 기존 교통망을 이용하면 차량 이용 시 30분대에 서울 주요 도심에 갈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2017년 완공 예정)를 이용하면 수도권 일대에 수월하게 달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입지해 있어 녹지가 풍부하며, 단지 앞에 왕숙천이 있고 뒤로는 문재산이 있어전원적인 배산임수형 단지다. 왕숙천과는 바로 붙어 있어 영구 조망이 가능하며 10만여㎡의 수변공원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택지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중심상권과도 가까이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등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한양수자인 2차는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다. 전용면적 112㎡뿐만 아니라 97㎡의 경우도 침실 4개가 제공된

### 단지 앞엔 왕숙천 뒤편 문재산 스마트앱 통해 침실 관리 가능

다.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침실이 3개만 제공된 데 비해 진일보한 설계다. 남는 공간 없이 짜임새 있게 설계된 평면으로 현관, 팬트리, 안방 더블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2층 전용 97㎡ 일부 가구의 경우 다산신도시 최초로 테라스가 제공되고, 대형 알파룸도 사용이 가능해 가족들과 편안하고 여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전 타일에 더블 드레스룸이 적용됐고, 붙박이장은 TV 일체형 또는 수납 강화형으로 선택이 가능해 더욱 효율적으로 수납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최신 IoT기술을 활용, 국내 최초로 전 침실에 스마트앱을 적용했다. 각 방 단위로 입주자가 직접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주차공간도 신경썼다. 1/4가량을 더 넓은 확장형 주차공간으로 설계해자녀 등·하고, 마트 이용 등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주차할 수 있게 했다.

한양수자인 2차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지금동 지금삼거리 인근 남양주 종합 제2차사 건너편에 마련됐다. 13일 특별공급 청약, 14일은 1순위, 15일은 2순위를 청약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한다.

분양 문의:☎1566-6929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hihoilbo.co.kr

## 물만 부으면 ‘콩나물 독배기’ 한 그릇이 딱

### 농심, 쌀국수 용기면 출시 북어로 만 낸 시원한 국물 아침 식사 시장 본격 공략



“아침 굶지 마세요. 콩나물 독배기로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농심은 쌀국수 용기면 ‘콩나물 독배기’를 10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콩나물 독배기는 콩나물과 북어, 무로 맛을 낸 시원한 국물에 쌀로 만든 면으로 부담없이 가볍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농심은 상대적으로 라면 취식률이 낮은 아침 식사 시장을 본격 공략하며라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아침 대용식 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1인가구,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아침 식사 매식(買食)비율은 2012년 13.7%로 1999년(7.3%)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아졌다(국민건강 영양조사 2015년). 이에 따라 외식과 식품기업은 물론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대용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아침 식사 시장 규모는 2009년 7천억 원대에서 현재는 약 1조 원대로 매년 평균 11%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

다”며 “반면 라면의 평일 아침 취식률은 1.2%로 제일 높은 주말 점심의 34.6%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침 대용식 시장을 공략하면 현재 2조 원대에서 홍보하고 있는 국내 라면 시장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농심은 아침 식사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콩나물 독배기’를 선보인다. 농심은 ‘소화가 잘 되면서 든든한 음식이 좋다’,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등 아침 식사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생각을 반영했다. 아침 식사 메뉴로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에 소화에 부담없고 든든한

쌀면이 대안이라는 해답을 얻었다 콩나물 독배기는 바쁜 아침 뜨거운 물을 붓고 5분만 기다리면 완성되는 시원한 국물의 쌀국수다. 밥과 국에 비해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짧지만, 이에 못지않은 영양과 포만감을 줄 수 있기에 아침 식사로 제격이다.

농심 관계자는 “콩나물 독배기 한 그릇이면 출근과 등교로 바쁜 아침에도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담없이 소화되면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농심은 쌀을 80% 함유한 쌀국수를 택했다. 일찌감치 한국인의 주식인 쌀이라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쌀국수 제품을 선보여 온 농심은 그간 쌀아 온 쌀면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용기면 형태의 쌀국수 콩나물 독배기를 만들어 냈다.

농심은 지난 4일 콩나물 독배기의 시장 안착을 위해 이례적으로 제품 출시에 앞서 매우 이상민을 모델로 한 광고를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농심은 “이성민은 친근한 직장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배우”라며 “이번 광고는 바쁜 아침, 콩나물 독배기로 가볍게 먹고 상쾌하게 출근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군포=박원규 기자 wkp@khihoilbo.co.kr

### 나만의 옷장 만들어보세요 한샘 설계·주문서비스 오픈

한샘몰(mall.hanssem.com)에서 라이프스타일과 수납 니즈에 따라 고객이 직접 옷장 설계 및 주문이 가능한 ‘한샘 옷장플래너 서비스’를 오픈했다.

한샘은 오는 31일까지 오픈을 기념해 옷장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포토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한샘몰 전용 마일리지 3만 점을 추가로 제공한다

고객들은 한샘 옷장플래너 서비스를 통해 섀베딩 시리즈의 긴 옷장·짧은 옷장·선반장 등 27가지

삼성전자가 2년여 만에 분기 8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2016년 2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50조 원, 영업이익 8조1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7일 발표했다.

8조1천억 원의 영업이익은 전분기(6조6천800억 원)보다 21.26%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 평균(7조3천80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으로 평가된다. 전년 동기(6조9천억 원)



한샘몰은 고객이 직접 설계하고 주문하는 ‘옷장 플래너 서비스’를 오픈했다.

형태의 옷장 몸통과 화이트·오크·아이보리 등 9가지 스타일의 도어를 설계해 구매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설계한 맞춤 옷장은 저장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설계를 마치면 총 견적금액

을 곧바로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다.

김재혁 기자 kjh@khihoilbo.co.kr

## 삼성전자 2분기 ‘깜짝 실적’ 영업이익의 8조 돌파

보다 17.39% 증가한 실적이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대로 올라선 것은 2014년 1분기(8조4천900억 원) 이후 무려 9분기 만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013년 3분기(10조1천600억 원) 역대 최고점을 찍은 뒤 2014년 1분기부터 줄곧 내림세를 보였으며 2014년 3분기에는 4조600억 원으로 바닥을 쳤다. 이후 2014년 4분기부터 반등해 네 분기 연속 완만하게 상승하다

지난해 4분기(6조1천400억 원) 다시 떨어져 잠시 숨을 고른 뒤 지난 분기 상승곡면으로 재진입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은 16.2%로, 지난 분기(13.4%)보다 크게 높아졌다. 수익성의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낸 2013년 3분기(17.2%)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에 주력인 IM(IT모바일) 부문에서 최소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 2년여 만에 최대 실적 올려 갤럭시 S7 등 IM부문 성과 커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대 4조4천억~4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갤럭시A·J 시리즈 등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을 단순화한 전략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 갤럭시S7 시리즈는 올해 출시 이후 2천600만 대가 판매됐다.

소비자대전(CE) 부문에서도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 동네방네

## 광주시 청소년 금연상담실 운영

광주시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에서 금연 실천 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금연 상담실은 청소년의 첫 흡연 경험 연령 감소와 흡연을 증가로 청소년에게 야기되는 학습능력 감소, 성장·발육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며,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을 제외한 시간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청소년 흡연 위험성 알기 ▶개인별 흡연 상황 파악 ▶흡연 욕구 대처 방법 탐색 등의 상담 ▶금연터말 체험학습 ▶격려 메시지 작성 등 금연의지를 다지며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 연천 백학초 생존수영교육 진행

연천 백학초등학교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천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생명 보호 능력과 물에 대한 적응력, 건강 유지 및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위기상황에서 생명 보호가 가능하도록 영법에 상관없이 10m 수영하기와 하위 목표로는 부력을 가진 생존조구를 이용해 10m 이상 수영하기, 10초간 물에 떠 있기, 수심 1m 잠수하기 등을 뜨고 물건 찾아오기다.

연천=정동선 기자 dsc@khihoilbo.co.kr

## 가평군민대상 후보 8월까지 접수

가평군은 품격 있는 희망가평, 행복가평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며 주민과 함께 호흡해 온 ‘2016 가평군민대상’ 후보자를 찾는다 고 7일 밝혔다.

군민대상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 기타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접수는 추천서, 이력서와 사진, 공적조서와 공적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8월 31일까지 자치행정과 인사팀(☎031-580-2125)으로 접수하면 된다.

가평=염건섭 기자 gsuim@khihoilbo.co.kr

## 부천시 ‘동네 학습공간’ 문 열어

부천시는 소사시민학습원 누리터에 우리동네 학습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학습공간은 카페, 음식점, 도서관 등 지역주민들이 친근한 동네 생활공간을 활용해 함께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신개념 마을 사랑방이다.

시는 이 사업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8곳이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동아리 활동, 모임, 회의 등 이웃 간 학습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 구리남양주교육청 정보화 교육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공무원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집중교육을 추진한다.

오는 9월 7일까지 주 1회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교육지원청과 지역학교 지방공무원 중 참가 희망자 27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지원청은 열악한 지역 상황으로 정보화 역량 향상에 소외된 공무원들에게 절 높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2016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단편적인 교육 방법을 탈피해 현장 실무중심으로 초점을 맞췄으며,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조한제 기자 chj@khihoilbo.co.kr

## 도서벽지 아이들 ‘광명동굴’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다

시·기관 4곳, 문화소외지역 등 청소년 초청… 1100여명 발길  
라스코 벽화전 등 관람기회… 펠프랭 전 佛 장관도 방문

“동굴 안에서 본 귀신의 집에서 공포 체험을 하면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어요. 다양한 동굴 체험을 통해 많은 역사를 알게 됐고, 재미있는 영상과 전시물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광명시가 펼치고 있는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광명동굴전’(이하 라스코 광명동굴전)을 계기로 도서벽지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에 전국 청소년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전북 진안군 송풍초등학교와 용담중학교 학생 26명(인솔교사 9명)이 라스코 광명동굴전 청소년 초청추진단의 초청으로 광명동굴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강원도 흥천군 모곡초등학교와 한서초등학교에서 인솔교사 8명을 포함한 청

소년 38명이 광명동굴을 찾았다.

이처럼 4월 16일 라스코 광명동굴전 개장과 함께 광명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해 경남 함양, 전남 완도·신안·해남·화순, 전북 위도, 강원 고성, 인천 자월·승봉도, 충남 논산 등 전국에서 청소년 1천100여 명이 초청돼 광명동굴과 라스코 광명동굴전, 방송국, 만화박물관 등을 관람했으며, 8월 말까지 2천 명 정도를 추가로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플뢰르 펠프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는데, 펠프랭 전 장관은 4월 16일 라스코 광명동굴전 개막식 참석에 이어 6월 29일에 도 광명동굴을 방문해 전국의 청



광명동굴을 찾은 도서벽지·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소년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충주성심학교와 전남 신안 장산초,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등 130여 명이 함께 했다.

광명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펼치는 이번 초청행사는 전국의 도서벽지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문

화전시와 산업시설 등 문화 체험을 선물하는 꿈 나누기 사업이다.

한편, 광명시는 문화민주화의 일환으로 경기공동모금회 등과

협약을 맺고 전국의 도서·벽지와 문화소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청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hihoilbo.co.kr

## 평택항 활성화 e커머스 전문가와 손잡고 모색

평택항만공 발전자문단 회의  
전자상거래 분야 신규 위촉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각계 전문가와 정보 교류를 통해 본격적인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택항만공사는 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정보 교류를 통한 공사 신사업 촉진 및 평택항 물류 활성화, 주요 현안 개선을 위한 ‘제3회 평택항발전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평택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항만물류·문화관광·경영효율화 분

야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택항 발전자문단을 위촉 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는 재무·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고, 평택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광일 사장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배후단지 2·1단계 개발, O2O물류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마련된 이번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의를 통해 모아진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앞으로 공사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항 발전자문단 노송만 위원은 “평택항은 타 항만에 비해 빠르게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O2O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가 항로 개설 및 물동량 창출 등 하반기 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발전자문활동과 같은 정보 개방·공유 등을 통한 정부 3.0 실현을 바탕으로 항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hihoilbo.co.kr

## 도내 기업 아마존·이베이로 수출 날개 달자

무협 경기북부본부 세미나  
전자상거래 활용 전략 소개  
150개 업체 참가 ‘배움 열기’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도내 수출기업 150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가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개 유관기관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이베이코리아 전문강사진과 아마존, 타오바오의 파워셀러를 초청,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가 구성돼 참석자들의 높은 반응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이베이를 활용한 해외 직판 전략 ▶티몰·타오바오를 활용한 중국 전자상거래 진출 전략 ▶아마존을 활용한 글로벌 쇼퍼몰 전략 ▶한국무역협회·코트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최정 연사로 나온 아마존 파워셀러 장영국 픽윈 대표는 “아마존을 활용하면 누구나 미국·유럽·중국 등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관한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다”며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나 창업 준비생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오픈마켓을 통한 수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박진성 본부장은 “도내 많은 내수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수출에 도전하기를 바

란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은 감소 기업 제품을 세계시장에 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신설된 무협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는 이번 세미나 외에 ‘이메일 사기 대응 설명

회’를 추가 진행하고, 8월에는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무역실무과정’, 9월 ‘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설명회’ 등 도내 기업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한국무역협회경기북부지역본부 ☎031-995-6161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 동두천시 지방세 환급금 납세자 계좌로 바로 지급

동두천시가 지난 1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

용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과세관청에 해야 받을 수 있어 납세자

의 불편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납세자가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금을 돌려 받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나 스

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도입은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sy@khihoilbo.co.kr

## 성남 경제 이끈 중기인 누구?

시, 우수 중소기업인 29일까지 접수… 11월 시상식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인 6명을 뽑아 해당 기업을 우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후보자를 3개 구청,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거나 기업체의 직접 신청(산업진흥팀)을 받는다.

공고일 현재 성남지역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높은 성장률을 보이거나 신기술 개발, 사회공헌 등의 성과가 있는 기업 대표를 추

천 또는 선정할 수 있다.

시는 수출금액, 매출증가율, 부채비율, 국내외 규격인증이나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일자리 창출, 직장 내 후생복지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1)·우수상(2)·장려상(2)·특별상(1)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인은 오는 11월 성남시장의 상패를 받게 된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 개별 전시회, 해외 규격인증 등 시가 주최하는 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줘 우대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e@khihoilbo.co.kr

# 여주시, 道생활체육대축전 카운트다운... 성공 개최 다짐

대회 100일 앞두고 개최식·안전대책 등 추진상황 보고회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총력... “市 문화·정체성 보일 것”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여주시 대회를 100일 앞두고 지난 6일 여주시체육관에서 중점 추진상황 보고 및 성공다짐 대회를 갖고 시민의 관심과 대축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보고회는 원경희 시장, 정병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축전 총괄 상황 보고에 이

어 홍보영상 시청, 개·폐회식 연출 기획 등의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대축전 준비태세 확립, 개·폐회식 공식행사, 자원봉사 및 서포터스 운영, 주차 및 교통대책, 안전대책 등 실시부별단위사업에 대한 중점실행계획을 보고했으며, 이어 진행된 ‘대축전 D-100 성공 다짐 대회’는 대축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행사 참여 기관과 시민들의 성공 개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대축전을 100일 앞두고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화축제’를 만들기 위해 개최식장인 여주종합운동장 새 단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학교·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생활체육

과 문화·역사·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대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준비하는 참여대전’,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경제대전’, ‘선수과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안전대전’을 목표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경희 시장은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을 역대 대축전과는 확실히 다르고 재미있게 준비하여



여주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중점 추진상황 보고 및 성공 다짐대회’에서 원경희 시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은 대회 마스코트. <사진=여주시 제공>

주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도민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축전이 여주시에 활력을 주

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안주 기자 ankju@khihoilbo.co.kr

## 고양, 토크콘서트로 시민참여 이끈다

자치대학 개강...‘마이스’ 강의  
패널·청중 대화로 궁금증 해결

‘2016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이 개강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킨텍스 임창열 대표이사가 ‘고양시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신한류와 마이스’라는 주제로 선보인 특강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2016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이 개강한다.

첫 강자는 고양시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광기 씨의 사회로 임창열 대표이사가 나와 마이스산업의 중요성과 킨텍스의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 마이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고양시의 미래 비전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는 경기관광공사 마이스부로 이동렬 단장, 원마운트 배병복 회장 등 마이스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



2016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이 개강한 가운데 토크콘서트에서 패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운데 신한류와 마이스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가져 관심을 더했다.

시 평생교육과 김선미 팀장은 “토크콘서트 방식을 처음 적용한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은 기존의 틀에 박히고 딱딱한 일방적 지식·경험 등의 전달 방식을 벗어나 청중과 강연자, 패널들이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청중들이 자연스럽게 주제에 몰입할 수 있

었다”며 “편안하고 이해하기 쉬운 대화 속에서 깊이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등 강좌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군포시청 앞 ‘느린 우체통’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들

군포시는 시청 현관 발삼머리 북카페에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와 군포우체국이 협력해 운영하는 ‘느린 우체통’ 사업은 이용자가 작성한 편지를 1년 후에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을 원하는 이들은 시청 발삼머리 북카페에 비치된 전용 엽서에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다만 발송지역은 국내로 제한되며, 올해 작성된 편지는 2017년 1월 5일 우체국에 보내져 발송된다. 시는 앞으로 매년 1월 5일 ‘느린 우체통’을 개봉해 발송할 계획이다.

김국래 책임은정책과장은 “특별한 소동을 경험해 볼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군포=박원규 기자 wkp@khihoilbo.co.kr

용인시 농업진흥지역 915ha 해제... 공장 건설 등 가능

용인시는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이 제한된 관내 농업진흥지역 915.9ha가 해제되고, 86ha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돼 지난달 30일자로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5천113ha의 20%인 1천1.9ha가 변경 또는 해제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

고 등이 가능하며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에는 1천㎡ 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번 시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용인=우승호 기자 bison88@khihoilbo.co.kr

## 양주 ‘책 가이드’ 따라가볼까

매월 테마가 있는 도서관 운영

양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책 읽기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특별한 테마를 정해 ‘열두 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7월 도서관에 따르면 7월은 ‘여행은, 쉼표’라는 주제로 여행과 휴식에 관한 도서를 추천하고, 각 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도서 전시를 병행해 진행한다.

추천 도서는 「여행의 힘」과 「하이킹 걸즈」로, 「여행의 힘」은 “여행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섰

춰해야 하는 필수 비타민”이라고 주장하는 작가가 여행의 의미와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으로 여행뿐만 아니라 삶과 사랑, 용기와 호기심, 치유와 위로에 관해 깊게 배운 지혜를 담고 있다.

「하이킹 걸즈」는 문제아로 낙인찍힌 은성과 보라가 소년원에 가는 대신 실크로드 도보 여행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 이야기로 여행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나의 가족과 나의 행동에 대해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주=전정훈 기자 jhun@khihoilbo.co.kr

## ‘나들가게’로 골목상권에 햇살

안양시, 12억여 원 들여 육성  
시설 개선 등 동네슈퍼 활력

안양시는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비로 오는 2018년까지 12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나들가게’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네 슈퍼마켓의 정서를 담은 명칭으로, 정이 있어 나들이하듯 가고 싶은 가게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에 선정됐다.

나들가게는 시설 개선과 손님

쉽 및 점포 건강관리, 사업 컨설팅 등 대형 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 가는 동네 슈퍼마켓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나들가게 육성사업 지원을 받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양센터(☎031-383-2792)에 접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골목 슈퍼마켓 점포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들가게 지원사업과 추진배경, 나들가게발전운영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안양=이정자 기자 jilee615@khihoilbo.co.kr

동네방네

부천, 7월 재산세 709억 원 부과

부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3만2천 건에 709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억 원이 늘었으며,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 등이 원인이다.

주택분 재산세 10만 원 이하는 이달에 전액을,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나눠 나눠 부과된다.

앞서 시는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물건 변동 자료 정비, 잡종지 및 나대지 전수조사, 임야 등 분리과세토지 사용 현황을 일제 조사했다. 또 유류주점 등 사치성 재산과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도 조사해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성남소방서, 인터넷 민원센터 운영

성남소방서는 온라인으로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원스톱 민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소방 민원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민이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소방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운영 가능한 업무는 소방시설 등 작동 기능 점검 결과 제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터넷 원스톱 민원업무가 초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의정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의정부시는 오는 29일까지 ‘2016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란 지자체가 직접 지역·가구별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검 대상은 의정부시장에인종합복지관, 의정부야동발달센터 등 39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시는 각 제공기관을 찾아가 기관 운영 및 회계, 인력 관리, 계약서 등 문서 관리, 부당 결제 유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의정부=신경호 기자 skh@khihoilbo.co.kr

문화산내

청학(수속)풀장

부설 청학숲유치원

○ 문화산 해발 100m고지, 울창한 숲!!, 맑은물!!

○ 풀장 水 : 문화산 약수터에서 나오는 山水

○ 맑은 공기 시원한 산바람

○ 최신AI Filter 정수기 사용 7월16일(토) 개장

성인풀장 · 유아풀장 · 영아풀장

취사 가능

인터넷주소 청학풀장, 청학유치원

■ 시내버스: 112, 46, 65-1번 (6.8번은 송도역 하차)

■ 마을버스: 523번

T.032)832-01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27

인천 계산동

계산자연수영장(풀)

오시는 길

연안로

계산로

계산자연수영장

7월 16일 개장

◆ 샤워장 무료

◆ Culligan 정수기 사용

◆ 넓은 주차장 확보

위 치\_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55-1

교통편\_ 버스1번, 79번, 770번, 계산동 자연물장 하차

취사가능 Tel. (032)545-3700

“올 여름엔 계산자연수영장에서 만나요”

계산자연수영장

계산자연수영장

보청기! 수촌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프리미엄 상담 및 조절을 받아보세요.

“보청기 지원금” 대폭인상

보청기 보조금 혜택이

— 커준 34만원에서 —

최대 131만원 지원

(청각장애복지카드 소지자)

보청기 지원금 관련 자세한 상담은 ▶

1661-0411 예약/상담

www.beltonepro.com

청능사 조현 대표/원장

조현난청연구소

인천 NO.1 벨톤보청기 인천공식센터

인천시청역5번출구 · 인천시교육청 정문앞 · 21세기병원 옆

김윤식의 인천 만보(漫步)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시인

인천에 여성 전문의원이 개원해 진료료를 시작한 것은 1921년 7월 5일이다. 미국 감리교여성해외선교부 소속 여의사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에 의해 중구 을목동 237번지에 부인병원이 개설되면서였다.(을목동 237번지는 현 기독교병원의 위치이다.) 이 부인병원 소식은 개원 전날인 7월 4일자 동아일보가 예고한다. “미국 부인전도회에서는 일찍이 여의를 조선에 파견하여 평양에는 관혜여의원, 경성에는 동대문부인병원을 세워 일반부인 환자를 치료하더니 이번에는 다시 인천 을목리 이백삼집길 번지에 부인병원을 신설하고 명 오일부터 진찰을 할 터인데 여의계의 유명한 ‘홀’ 부인이 감독이 되고 조선 여의사의 두 명이 보조하리라더라.”는 것이 기사 전문이다. 그리고는 약 4개월쯤 뒤인 10월 30일자 동아일보가 다시 같은 달 26일에 거행된 부인병원 개원식 기사를 내보낸다. 개원 초기에는 경향이 없어 미처 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후인 이날 비로소

부인병원

개원식을 거행했던 것 같다.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개원식에 이어 피로연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날 기사에는병원 관련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먼저 홀 부인의 을목리 부인병원은 당시 돈 5천 원(圓) 상당의 가옥(1928년 간행된 한국선교연보에는 ‘한국식 여관’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 또 당시 토지대장도 1921년 6월 18일 을목동 237번지가 R. S. Hall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한 채였다는 내용과 조선 여의사로는 총독부 의학교를 나와 평양에서 개업의로 있으면서 ‘부인 사회에 대한 편의를 보급하던 김영흥(金英興) 여의사와 일본인으로 보이는 하락(饒樂) 부인이 원장으로서 ‘병원의 설립 취지와 장래 방침을 설명’했다는 내용이다. 기사 중에 특이한 것은 감리교 목사로 또 독립운동가로 크게 활동했던 오기선(吳基善) 감리사가 개회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1921년 동경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있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본

인들에 의해 한국인 피살사건이 벌어지자 재해동포위원단을 조직해 본국 교회와 연관을 맺고 우리 동포들을 구호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아무튼 홀 부인이 서울과 평양보다는 훨씬 늦게나마 인천에 부인병원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은 여성들이 말 못하고 감내할 질병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그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같은 문중의 남성이라 할지라도 손수가 먼 경우에는 상면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남녀의 분별 관념 때문에 웬만큼 병세가 위중하지 않으면 결코 남자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1891년 10월(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1890년 10월로 기록돼 있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홀 부인은 “처음 10개월 동안에 무려 2천350명의 여자 환자를 치료했고 그 밖에 82명에 대해 왕진을 실시했으며 35명을 입원 치료하게 하는 등 정열적인 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보아도 당시 우리 여성들의 남성 의사 기피 실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홀 부인은 여성전문 병원의 설립이나 여성 의료 인력의 필요성을 특히나 절감했던 것 같다. 그녀가 내한 2년 만에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은 여성의 손으

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화학당 학생 4명과 일본 여성 1명으로 의학훈련반을 조직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학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그 증명일 것이다. 홀 부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지난 6월 13일 중구 용동 117번지에 문을 연 이길여산부인과기넨관 개관이 떠오른다. 이 기넨관은 1958년 이길여 원장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의사로서의 길”을 걸을 것을 다짐하고 개원했던 당시 이길여산부인과위원회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이길여산부인과는 밖에,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익재단인 가천길병원으로 우뚝 섰다. 홀 부인의 부인병원이 훗날 기독교병원 설립의 밑알이었음과 비슷하다. 벽안의 여의가 시작한 인천 여성전문 의료 역사의 맥이 이렇게 길병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민참여보도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제·세교지구 언제 가려나

지제·세교지구 언제 가려나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합에서 사업시행사에 5만여㎡를 싼값에 넘기는 바람에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땅이 그만큼 줄었고, A씨(55)는 5천600여㎡의 땅이 있지만 860여㎡만 주주거처로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서로 간의 불신만 쌓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 2부(김동헌 부장판사)는 지제·세교 지구 조합원 30여 명이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이하 지제·세교조합)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시공사 선정 무효 등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출자금 연 30% 이자 적용, 출자금의 차입금 전환, 시공사 선정, 수익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의결, 정관 세칙 및 규정개정을 총회 의결이 아닌 대의원회의 의결 변경 등의 결의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차입금으로 소급 전환하면서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한 차입금 전환 결의는 도시개발법 규정 및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합이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외에 체비지 매각 등으로 300%~500%의 배당금을 주기로 한 결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014년 1월 무효판결을 내렸는데, 조합이 다시 투자금을 차입금으로의 전환과 함께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배당금 비율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조합의 시행대행사를 수익계약으로 선정한 것은 공사도급 체결 전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합 정관에 반하고, 시공사 선정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시행대행사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기고 도시개발법령의 상당수 조항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과 시행대행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제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3년 지제동 일대 84만여㎡ 부지에 6천여 가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현재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의 법정 공방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최초’와 인천

금요논단

강옥엽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인천은 오래전부터 다른 어떤 지역보다 도시 정체성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지난 역사 속에 응축된 다양한 경험이 인천인들에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지역 탐구의 역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동성’, 이것이야말로 인천의 특징이자 정체성의 바탕이다. 인천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강화 고대인돌군을 비롯해 고대 중국으로 가는 최초의 뱃길 능해대, 고려 왕실의 유향이 서린 왕릉과 제2의 수도였던 강화도에서의 팔만대장경 조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축산 사고와 왕실 도서관 의규장각, 민족정신을 온존시킨 강화학파의 흔적이 남아 있다. 또, 1883년 제물포 개항으로 근대문물이 이입되자 해관, 호텔, 공원, 등대 등 각양각색의 건축물과 시설들이 최초로 조성됐다. 일제강점기 질곡의 세월과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으로 도시가 초도화되는 재난도 겪었고, 그 복구를 위해 1960·70년대 산업화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현장이 됐던 공간이다.

기호일보  
kihoilbo.co.kr

등록번호 인천가00001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인지동 /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훈영

인천본사 032-761-0001 ⑤ 032-761-0015  
경기본사 031-898-6767-8 ⑥ 031-898-6769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⑦ 031-872-2991

구독신청 032-761-0007  
판 매 국 032-761-0013  
광고문의 032-761-0002

편집국 팩스  
정지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체육부

032-761-0011  
032-761-0003  
032-761-0004  
032-761-0005  
032-761-0005

032-761-0011  
032-761-0003  
032-761-0004  
032-761-0005  
032-761-0005

032-761-0006  
032-761-0009  
032-761-0008  
032-761-0008  
032-761-0007

지 금 요 논 단  
계 랑  
남 구  
남 동  
동 구  
부 평  
석 남  
송 도  
연 수  
연 안  
연 회

032-563-0022  
032-547-5947  
032-882-2547  
032-421-1966  
032-764-2775  
032-526-9400  
032-576-4191  
032-831-0797  
032-811-6911  
032-887-7355  
032-561-4189

영 종  
중 구  
강 화  
가 평  
고 양  
연양·과천  
광 평  
광 주  
구 리  
군포·의왕  
김 포  
남양주

032-743-2990  
032-772-4909  
010-3330-5204  
031-582-0478  
031-962-5360  
010-6354-3259  
02-2688-3239  
010-5204-3470  
031-511-4434  
031-394-0446  
031-897-3030  
031-511-4434

동두천  
부 천  
서 울  
성 남  
수 원  
시 흥  
안 산  
안 성  
양 평  
양 주  
여 주  
연 천

031-865-2557  
010-5356-8211  
02-313-5962  
031-757-8948  
011-242-6004  
010-3218-8724  
010-5313-5329  
031-671-1277  
031-845-4200  
010-8916-2106  
031-885-3627  
031-834-1307

오 산  
신 갈  
처 인  
의정부  
이 천  
파 주  
포 천  
하 남  
화 성

010-9274-3466  
031-285-2283  
031-333-1112  
031-845-4200  
031-634-3312  
031-941-4513  
031-653-3132  
031-535-5906  
031-793-4142  
010-9274-3466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외부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호한자(畿湖漢字)

木鷄之德(목계지덕)  
木 나 무 鷄/鶩 닭 계/之 여조사 지/德 큰 덕

<장자(莊子)·<달생(達生)·편에 나온다. 기성자라는 자가 왕을 위해 싸움닭을 기르는데 열을 만  
에 왕이 “싸울 만한 닭이 되었는가?”하고 물었  
다. “아직 말었습니다. 지금 건성으로 사나운 척  
하며 체 기운만 믿고 있습니다.”  
열을 후에 또 물었다.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다른  
닭을 보면 눈을 출기고 기운을 뽐내고 있습니다.”  
열을 후에 또 물었다. “거의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울며 덩벼도 조금도 태도를 변치 않습니다.  
바라보며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닭과 같습니다.  
그래서 닭의 덕이 온전해져서 다른 닭이 감히 덤  
비지 못하고 반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鹿鳴>

청각장애인 보청기지원 대/폭/확/대

인천연수센타

굿모닝보청기

<청각장애인 부담료>  
~차상위계층 : 무 료  
일 반 : 131,000원  
(최신형 고급 보청기)

★청각장애 / 절차상담  
★최신 검사장비보유★  
★의료기기 등록업체★

김 순 영 원장

Starkey Group  
G 굿모닝 보청기  
www.인천보청기.net  
무료 청력검사  
☎ 862-1661  
연수구 나사렛국제병원 옆 삼성프라자 5층

송도신도시  
현대아파트  
이마트  
홈플러스  
인천1호선 동춘역 4번 (버스환승: 나사렛국제병원 하차)

나사렛 국제병원 옆  
공영 주차장  
G 굿모닝보청기  
제일빌딩(삼성프라자 5층)  
송도유원지  
동춘1동 사무소  
롯데마트

www.softfind.co.kr

CyberLink베스트셀러 미디어 플레이어

PowerDVD 16 출시

World's No.1 Movie&Media player

■ 대화면에 최적화 된 기능 - 대화면 감상을 위한 품질 향상, 그리고 TV 모드까지  
■ 미디어 무선 스트리밍 - 애플 TV, 크롬캐스트 등의 기기와 호환, 무선으로 대화면 스트리밍  
■ 업그레이드 된 리모콘어플, PowerDVD Remote - TV, 프로젝터로콘텐츠 감상 시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리모콘어플  
■ 가벼워진 프로그램 - PC의 소스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최적화 된 프로그램  
■ 4K, 블루레이, 120/240 fps 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를 가장 부드럽게 재생하는 플레이어

PowerDVD 16

CyberLink 한국총판 (주) 엘투스  
-mail : sales@L2C.co.kr  
교육용/사업용/공공기관용 라이선스 문의  
-Tel : 031-717-0961  
-Fax : 031-717-61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11-15 301호(정자동, 봉우빌딩)  
TEL.031-717-0961 FAX.031-717-6103 MAIL.sales@l2c.co.kr

## 박태우 칼럼

고려대 교수/푸른  
정치연구소장

사회과학을 전공해 정치학자로 살아온 나로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현실문제에 대한 진단과 이를 풀기 위한 도전의 과정 속에서 비교적 많은 좌절과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 그냥 대학의 강단에서 순수한 정치학자의 삶을 살았어도, 평생이 보장된 외교관의 신분으로 공직생활을 했었다면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 문득 나의 서재에 있는 15년 전에 발간된 나의 처녀시집을 꺼내서 보다가 내가 망각하고 있는 중요한 보검과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발견하게 됐다.

어린 시절 문학 소년을 꿈꾸면서 많은 습작을 하던 습성이 2000년도에 시인(시인)으로 등단하는 과정을 일구었지만, 순수한 문학의 아름다움과 현실 사회의 改革(개혁)이라는 과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 온 기억이 새롭다. 지

## 아직도 나를 지탱해주는 강철 같은 나의 詩心

금까지 단독으로 7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그 시절마다의 정서를 담고 시대상을 짚은 언어 속에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당신이 날 부르면」이라는 처녀시집에 쓰여진 나의 인사말 속에는 지금 내가 분단국가의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책무와 시대정신을 일깨우는 내 망각 속의 언어가 있었다. 「詩人(시인)의 말」에 담긴 당시의 나의 談論(담론)은 泰山(다산)선생의 愛民(애민) 愛國(애국)정신에 대한 실천적 삶이었다는 생각이다. 15년 전이니 지금보다 더 도전적이고 패기 있는 실천적 지식인이 되려고 노력한 흔적을 이 시집에서 새삼스럽게 만난 것이다.

그 이후 현실사회가 나에게 많은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고, 좌절의식을 극복하는 치열한 노력과 방황, 그리고 용기 있는 재도전 등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일군 주요한 동력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말이다. 다산 정약용선생이 조선시대의 사상을 집대성해 공자사상의 修己(수기)정신에서 한참이나 올라 治人(치인)의 각성을 촉구한 勇氣(용기)까지 수용한 것을 실학의 泰斗(태두)라

여기면서 지금 21세기 분단국가에서의 진정한 지식인의 용기는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해 보는 것이다.

지금 내가 그동안에 쓴, 수많은 시(시)들이 내가 15년 전에 장담했듯이, 나를 젊게 해 왔는가, 나의 소신을 지키게 했는지, 지금도 나를 제한하는 구속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나약한 나를 지켜주는 절대중심의 思想(사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자문해 보는 것이다. 그냥 학자로서, 외부관료로의 안정적으로 보장된 길을 던지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일구는 리더를 꿈꾸면서 현실의 벽 앞에서 3번이나 좌절하면서도 삼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오는 대한민국의 담론을 일구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그 근원이, 이렇게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깊은 詩心(시심)에 있다는 깨달음을 다시 하게 된다.

이러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삶은 보통사람들의 삶보다 더 도전적이고 더 고민하는 모습이다. 실천하는 지식인이라는 큰 명분을 위한 삼아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정진하면서 잘못된 시대정신과 싸우고 통일선진 대한민국을 이루는 원

대한 꿈을 위해서 남은 삶도 더욱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의무이자 소망인 것이다. 끝으로, 수많은 나의 시들 중에서 내가 지금도 아끼는 나의 시를 하나 소개한다.

#당신이 날 부르면(1999년 10월 작)  
당신이 날 부르면 나는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요. 슬임 흘날리는 가을 바람에 당신의 숨결을 담은 미소가 나를 부르면 나는 나는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요. 내가 당신을 부르면 당신은 내게로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오. 당신은 가을의 맑은 공기와 자연의 숨결에 젖어 나를 유혹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나는 인간들의 탐욕, 위선 같은 악보를 벗어나서 당신을 초대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날 부르는 소리에 가까이 가보니 휘어어 휘어 이슬바람 잔디바람 속에 향긋한 뱀향의 미소를 머금고 서서 분홍의 빨강의 옷을 입고 갈기 갈기 겹옷을 찢어 날리는 아한 감나무가 아니요. 나를 부르시오. 나도 당신의 꿈속에서 그대의 숨결에 고이 고이 꿈꾸고 싶소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부를 수가 없으니 이 어이 슬픈 일이 아니요.

## 전성군의 農 비어천가



농협안성교육원 교수/경제학박사

## 날씨 활용 마케팅=기업의 경쟁력

요즘 날씨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상정보대상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날씨를 경제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하는 힘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부 유통업체들은 상품 주문부터 재고관리, 상품 진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케팅과정에 날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날씨경영을 농산물 마케팅에 경제적으로 도입, 활용하면 어떨까.

농산물의 경우 병해충 발생이 주로 기온, 습도 등 기상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병해충 발생은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는 물론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진다. 또 날씨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과 소비품이 달라져 기후나 날씨 변화를 예측해

그에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농산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판매 호기를 놓치게 된다.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을 제 시기에 팔지 못하면 제 값은커녕 노임조차 건지기 힘들다. 농촌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른 날씨 변화에 대한 위험 관리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날씨 마케팅의 현주소는 일부 공산품에 한정돼 있다.

## 농업인에 필수가 된 '경제적 수단'

농업인에게도 날씨는 더없이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다. 먼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농업 기상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보자. 이곳에서는 전국의 날씨 정보를 비롯해 영농지수, 병해충 발생 예보, 주간 농업 기상 소식지 등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영농지수는 병해충 발생 확률, 농작 살포 가능 여부, 자외선 강도 등을 제공하는 정보인데 병해충지수는 기온과 잎이 이슬에 젖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농약살포지수는 강수 확률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 0~100

사이의 지수로 표현되고 있다. 이 정보에는 날씨에 따른 병해충의 발생 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 수확물의 품질을 높이며, 농약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가능케 하는 비법이 숨어 있다. 이 밖에 기상협회에서 제공하는 주간·월간·3개월간 일기예보 서비스에 가입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 일기예보 안내 전화번호인 '131'을 누르면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예상되는 날씨 상황을 상세히 알려 준다.

## 농산물 판매에서도 주요변수 작용

다음은 농산물 판매의 경제성이다. 농산물은 날씨 변동에 민감한 상품이다. 유통 도중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날씨에 따른 최적의 유통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뒤 폭설이 예상되면 과일 도매업자는 상품을 일반도로가 아닌 열차로 배송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매출 자료와 과거 기상 데이터를 이용, 제품별 기상 요소와

의 상관관계를 구하면 품목별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30℃ 이상(일평균)인 날 A판매점에서 하루에 약 100개의 수박이 팔렸다고 가정하자. A판매점은 30℃의 기온이 예상되는 날의 하루이틀 전에 예년의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루 평균 100개의 수박을 주문할 수 있다. 그러면 불필요한 과다 주문을 방지하고 재고 부담을 줄이게 된다.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자신의 상품이 나 매장만이 갖고 있는 날씨 변수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장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비 오는 날에 유난히 다른 곳보다 매출이 높아지는 곳이 있어서다. 또 기상 특징이 다른 지역은 농산품 판매량도 달라 그 지역 기후에 적합한 제품군을 선별해 전략 농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농산물도 날씨를 잘 이해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다. 날씨에는 그저 '날씨'가 아닌 매출을 올리고 내리는 귀한 정보가 됐다. 날씨 정보를 마케팅으로 잘 활용하면 농작물의 건강한 생육과 판매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설

##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교 건물

5일 밤 울산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경기도에까지 진동이 감지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도내 학교의 절반가량이 지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나 내진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교육청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3천451개 학교 내 건물 4천920동 중 1천573개교 3천335동이 내진설계가 필요한 상태다. 이는 전체 학교의 45.5%, 학교 건물의 67.7% 수준이다. 이처럼 학교시설의 내진 설계율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기상청과 지진 전문가들은 언제든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국내 지진은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1978~1998년 지진 횟수는 연평균 19.2회였지만 1999~2015년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47.8회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10년 이후 규모 3.0 이상 지진은 59회나 된다.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고 무방비로 노출된 구조물의 내진 보강은 물론이고, 신속한 지진

정보 전파 체계를 갖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진은 대처하기가 가장 어려운 재난 중의 하나다. 도시가 고립되고 주택이나 건물의 파괴로 인명 피해를 클 뿐 아니라 전기 수도 시설의 파괴 등으로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도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라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통해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내진성능 확보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학교 건물 내진보강 사업에 소요될 8천959억 원 중에 예산 부족으로 올해 소요예산의 1.4% 수준인 130억 원만 편성됐다고 한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 완료까지 82년가량 걸릴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지진은 대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닥치는 게 아니다. 안전대책 마련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농작물 절도 예방이 최선이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도 있다. 모든 농작물은 씨앗을 뿌리고 거둬 때까지 농민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 이처럼 귀중한 땅의 결실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작물 절도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은 한창 농번기다. 농민들이 논밭으로 나가기 때문에 농가를 비울 수밖에 없다. 수확한 농작물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가. 게다가 수확하지 못한 마늘, 양파 등 농작물은 논밭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절도범들로부터 농작물을 지키려고 밤을 새울 수도 없다. 이처럼 경비가 소홀한 들녘의 농작물들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틈을 노리는 절도범들이다. 농작물을 잃고 허탈해 하는 농민을 생각해 보았는가. 불과 몇 십년 전만해도 우리는 농경사회였다. 때문에 농민의 자식들이라 할 수 있다. 농작물을 훔치는 행위는 어느 범 죄행위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 하겠다. 곧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온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다. 농작물 절도범을 지금 소탕하지 않으면 가을 추수기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농작물 절도범에게는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앞으로 농민을 울리는 농작물 절도범에게는 강력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농작물 절도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야 하겠다. 농작물 절도범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장물을 사들이는 장물 취득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둑질한 농작물을 취득하는 장물취득자도 절도범에 준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신고정신 또한 농작물 절도범을 근절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평소 애나지 않던 수상한 화물 차량이나 낯선 자가 농촌지역을徘徊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작물의 경우 한번 도둑맞으면 사후에 찾기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장물과 동종의 농작물이 많기도 하지만 이미 유통된 후가 되거나 소비한 후가 되기 때문이다.

예방이 최선이다. 고양경찰서가 농작물 절도예방을 위해 관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경지 주변 사이렌 취명 및 주야간 특별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농촌 치안단속에 경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다. 단 한 건의 농작물 절도사건이 없기를 바란다.

## 강화 우성공업사

H빔공사 · 조립식판넬 · 공장신축  
전원주택 · 축산시설 · 잡철공사전문

## 성실시공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성공업사가 되겠습니다.

대표: 박 종 덕



주소\_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27  
(도로명\_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34)  
TEL\_ 032)933-3125 HP\_ 010)5274-3126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KBS 1                                                                 | KBS2                                                                                               | MBC                                                                                                   | SBS                                                          | OBS                                                                                | EBS                                                                                                                                                                                                     |
|----|-----------------------------------------------------------------------|----------------------------------------------------------------------------------------------------|-------------------------------------------------------------------------------------------------------|--------------------------------------------------------------|------------------------------------------------------------------------------------|---------------------------------------------------------------------------------------------------------------------------------------------------------------------------------------------------------|
| 5  | 5:00 KBS 뉴스<br>5:10 한국인의 밥상<br>6:00 KBS 뉴스 광장<br>7:50 인간극장            | 5:00 튠튼생활체조<br>5:05 영상앨범 산<br>5:35 안녕 우리말<br>5:40 건강혁명<br>6:00 이육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br>6:1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br>7:50 MBC 아침 드라마<br><좋은 사람>                                                   | 6:00 모닝와이드<br><1~3부>                                         | 6:00 와이드 ASIA<br><허 끝으로 만나는 중국><br>6:55 OBS 전격 인터뷰<br>7:05 독특한 연예뉴스<br>7:45 OBS 뉴스 | ☐ 오전<br>5:00 EBSe 생활영어<br>40 희망동경<br>6:10 명의<br>7:00 곤<br>30 모피와 친구들<br>8:00 두다다콩<br>30 봉구야 말해줘2<br>45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br>9:00 명탐정 피트2<br>4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br>10:30 한국기행<br>50 최고의 요리비결<br>11:20 하나뿐인 지구 |
| 8  | 8:25 아침마당<br>9:30 KBS 뉴스                                              | 8:00 KBS 아침 뉴스타임<br>9:00 TV 소셜<br><내 마음의 꽃비><br>9:40 여유만만                                          | 8:30 생방송 오늘 아침<br>9:30 MBC 생활 뉴스<br>9:45 기분 좋은 날                                                      | 8:30 아침연속극<br><사랑이 오네요><br>9:10 좋은 아침                        | 8:10 경인 불<br>8:45 미디어 공감 좋은 TV<br>9:45 OBS 뉴스                                      |                                                                                                                                                                                                         |
| 10 |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br>11:00 KBS영동역사관 공개토포대왕<br>11:50 안녕 우리말             | 10:40 지구촌 뉴스<br>11:00 인간극장 스페셜                                                                     | 10:55 2016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br>발 경기 <LA다저스 vs 샌디에이고>                                                       | 10:10 SBS 뉴스<br>10:25 SBS 생활경제<br>11:00 막 좋은 나이              | 10:05 드라마 극장<br><만나><br>11:15 월드 드레킹 명산<br>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                                                                                                                                                                                                         |
| 12 | 12:00 KBS 뉴스<br>1:00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 12:15 인간극장 스페셜                                                                                     |                                                                                                       | 12:00 SBS 뉴스<br>12:50 2016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br>오픈 with SBS 1R     | 12:05 특집 토론 오산,교육이 도시<br>를 바꾸다<br>1:05 꿈꾸는 U                                       |                                                                                                                                                                                                         |
| 2  | 2:00 열린채널<br>2:30 영상앨범 산<br>3:00 우리말 겨루기<br>3:50 슈퍼<br>3:55 튠튼생활 체조   | 2:00 KBS 뉴스타임<br>2:10 여유만만<br>3:05 후토스-일어버린 숲<br>3:30 로보텍스                                         | 2:15 능력자들 스페셜<br>3:00 MBC 뉴스<br>3:10 키즈 CSI 과학수사대<br>3:40 드림주니어                                       | 3:00 3시, 뉴스브리핑                                               | 2:05 꾸러기 TV<br>3:00 행복 부동산 연구소<br>3:45 OBS 스페셜                                     |                                                                                                                                                                                                         |
| 4  | 4:00 4시 뉴스집중<br>5:00 KBS 뉴스<br>5:30 동물의 세계                            | 4:00 누가 누가 잘하나<br>5:00 뮤직뱅크                                                                        | 4:25 MBC 일일특별기획<br><워킹맘 육아대다><br>5:00 MBC 이브닝 뉴스                                                      | 4:30 고향이 보인다<br>5:00 고고 다이노<br>5:30 SBS 뉴스퍼레이드               | 4:45 OBS 뉴스 & 이슈<br>5:45 드라마 극장<br><만나>                                            |                                                                                                                                                                                                         |
| 6  | 6:00 6시 내고향<br>6: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br>7:00 KBS 뉴스<br>7:35 독특한 소비자 리포트 | 6:30 2TV 생생정보<br>7:50 일일드라마<br><여자의 비밀>                                                            | 6:00 2015 MBC경영평가 결과보고<br>6:10 생방송 오늘 저녁<br>7:15 일일 연속극 <다시 시작해><br>7:55 MBC 뉴스데스크                    | 6:05 생방송 투데이<br>7:20 일일드라마<br><당신은 선물>                       | 6:55 위대한 유산<br>7:05 경인 불<br>7:45 OBS 뉴스 M                                          |                                                                                                                                                                                                         |
| 8  | 8:25 일일 연속극<br><별난가족><br>9:00 KBS 뉴스9                                 | 8:30 VJ특공대<br>9:35 어서옵SHOW                                                                         | 8:55 MBC 일일특별기획<br><워킹맘 육아대다><br>9:30 듀엣 가요제                                                          | 8:00 SBS 8 뉴스<br>8:55 공군인 이야기 Y                              | 8:35 오늘의 월드 뉴스<br>9:05 독특한 연예 뉴스<br>9:50 엄마를 까무라치게 하는 50가<br>지 방법                  |                                                                                                                                                                                                         |
| 10 | 10:00 명견만리<br>10:55 감성애니 하루<br>11:00 KBS 뉴스라인<br>11:40 생방송 심야토론       | 11:00 언니들의 슬램덩크                                                                                    | 11:10 나 혼자 산다                                                                                         | 10:00 정글의 법칙<br>11:20 웃음을 찾는 사람들                             | 10:45 OBS 뉴스라인<br>11:05 OBS 시네마<br><새 일간지>                                         |                                                                                                                                                                                                         |
| 12 | 1:00 KBS 스포츠 중계석<br>2:35 이웃집 찰스<br>3:25 연바당 거문방<br>3:50 콘서트 7080      | 12:25 유희열의 스페셜북<br>1:50 생활의 발견                                                                     | 12:35 MBC 뉴스<br>12:5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br>1:10 MBC 스페셜<br>2:1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br>3:10 MBC 파워매거진<br>4:10 통일 전망대 | 12:40 백중원의 3대천왕<br>2:20 스포츠 빅이벤트<br>4:00 2016 US 여자 오픈 골프 2R | 2:00 행복 부동산 연구소                                                                    | <장군에게 총알을>                                                                                                                                                                                              |

|    | KBS 1                                                                                         | KBS2                                                                 | MBC                                                                      | SBS                                                                                                 | OBS                                                                      | EBS                                                                                                                                                                                                                                                    |
|----|-----------------------------------------------------------------------------------------------|----------------------------------------------------------------------|--------------------------------------------------------------------------|-----------------------------------------------------------------------------------------------------|--------------------------------------------------------------------------|--------------------------------------------------------------------------------------------------------------------------------------------------------------------------------------------------------------------------------------------------------|
| 5  | 5:00 KBS 뉴스<br>5:10 KBS 네트워크 참 TV<br>6:00 KBS 뉴스광장<br>7:50 남북의 창                              | 5:05 생로병사의 비밀<br>6:00 다크 공감<br>6:50 우리동네 예제능 스페셜<br>7:45 어서옵SHOW 스페셜 | 5:00 우리가족 우리문화<br>6:00 MBC 뉴스투데이<br>7:10 경제매거진 M                         | 6:00 토요 특집 모닝와이드<br><1~2부><br>7:40 SBS 뉴스토리                                                         | 6:00 사람,산<br>6:50 위대한 유산<br>7:00 OBS 초대석                                 | ☐ 오전<br>5:00 한국어 쉬워요<br>3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br>6:00 성인문화교육 프로젝트 공부<br>하기 좋은 날<br>30 통일의 길<br>7:00 로보카 폴리<br>30 시계마을 타기톡!<br>8:00 레이디버그<br>30 모여라 당동댕<br>9:00 웅강한 소방차 레이<br>25 봉구야 말해줘2<br>40 마사와 곰<br>10:00 레전드 하어로 삼국전<br>11:00 갤럭시 프로젝트<br>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 8  | 8: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br>9:30 KBS 뉴스<br>9:40 걸어서 세계속으로                                            | 9:05 언니들의 슬램덩크 스페셜                                                   | 8:00 MLB 라이브 2016                                                        | 8:30 정글의 법칙<br>9:40 자기가-백전손님                                                                        | 8:00 복,세,통.<br>8:25 아시아 TOP 5<br>8:50 다크 드라마 <부(富)의 탄생><br>9:45 엄마의 불발   |                                                                                                                                                                                                                                                        |
| 10 | 10:30 우리동네 공교시<br>11:00 사랑의 가족<br>11:55 슈퍼                                                    | 10:20 영화가 좋다<br>11:30 해피투게더 스페셜                                      | 11:30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 10:55 접속! 무비월드                                                                                      | 10:45 멜로다큐 <가족><br>11:45 OBS 뉴스<br>11:55 다크 <도전>                         |                                                                                                                                                                                                                                                        |
| 12 | 12:00 KBS 뉴스<br>12:10 국악한마당<br>1:00 이육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br>1:10 이웃집 찰스                           | 12:35 개그 콘서트                                                         | 12:00 MBC 뉴스<br>12:10 무한도전 스페셜<br>1:40 수목미나시리즈<br><윤발 로맨스 13~14화>        | 12:00 SBS 뉴스<br>12:10 월화드라마<br><닥터스 -5~6화>                                                          | 12:55 행복 부동산 연구소 리포트<br>1:55 OBS 시네마<br><린넨맨>                            |                                                                                                                                                                                                                                                        |
| 2  | 2:00 헬로카봇3<br>2:15 참비밀<br>2:30 우리동살 몽계공랑3<br>2:45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랑<br>3:00 다크 공감<br>3:55 KBS 스페셜 | 2:00 슈퍼맨이 돌아왔다<br>3:45 KBS 특별기획<br><함부로 애들하게>                        | 3:40 MBC 뉴스<br>3:50 3시 음악중심                                              | 2:25 특별기획<br><미녀 공심이 -16화><br>3:35 SBS 뉴스<br>3:45 판타스틱 듀오                                           |                                                                          | ☐ 오후<br>12:00 최고의 요리비결<br>2:30 나눔 0700<br>3:10 한국기행<br>4:45 세계의 눈<br>5:35 세상의 모든 법칙<br>45 장학퀴즈<br>6:35 글로벌 아홉 찾아 삼만리<br>7:25 다크 영화 길 위의 인생<br>8:15 다문화 고부열전<br>9:05 아버지의 귀환<br>55 글로벌 가족 청취기<br>10:25 장수의 비밀<br>55 숨은 한국 찾기<br>11:45 세계의 영화<br><란>     |
| 4  | 4:50 KBS 뉴스<br>5:00 한국인의 밥상<br>5:50 2016 희망로드 대장정                                             | 4:55 KBS 특별기획<br><함부로 애들하게>                                          | 5:00 우리 결혼했어요                                                            | 4:50 토요일이 좋다 1부<br><오 마이 베이비>                                                                       | 4:10 남도의 보물 100선<br>4:45 OBS 뉴스<br>4:55 애플의 전쟁, 애플<br>5:35 추격포토 <사라진 가족> |                                                                                                                                                                                                                                                        |
| 6  | 7:00 KBS 뉴스<br>7:10 이웃사이다                                                                     | 6: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br>7:55 주말 연속극<br><아이가 다섯>                      | 6:25 무한도전<br>7:55 MBC 뉴스데스크                                              | 6:10 토요일이 좋다 2부<br><백중원의 3대천왕>                                                                      | 6:35 경인 불 스페셜<br>7:45 OBS 뉴스 M                                           |                                                                                                                                                                                                                                                        |
| 8  | 8:10 KBS 글로벌 다크멘터리<br>9:00 KBS 뉴스 9<br>9:4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9:15 연애가 중계                                                          | 8:45 주말 드라마<br><가화만사상>                                                   | 8:00 SBS 8뉴스<br>8:45 SBS 주말드라마<br><그때, 그건가야>                                                        | 8:10 윤니 극장 <이것이 인생><br>9:10 전기현의 세내뮤직                                    |                                                                                                                                                                                                                                                        |
| 10 | 10:30 콘서트 7080<br>11:30 KBS 뉴스<br>11:40 T타임                                                   | 10:40 배틀 트립                                                          | 10: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br><육중화><br>11:15 마이 러블 텔레비전                          | 9:55 특별기획<br><미녀 공심이><br>11:10 그것이 알고싶다                                                             | 10:10 OBS 시네마<br><김콩>                                                    |                                                                                                                                                                                                                                                        |
| 12 | 12:10 독립영화관<br>1:50 일약 토크<br>2:10 KBS 스포츠 중계석<br>3:4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br>4:00 내고향 스페셜           | 12:00 영화가 좋다<br>1:05 걸어서 세계속으로                                       | 12:45 스포츠 매거진<br>1:45 나누면 행복 스페셜<br>2:50 경제매거진 M 스페셜<br>3:40 TV 예술무대 스페셜 | 12:20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br>1:30 영재발굴단<br>2:30 TV 동물농장<br>3: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br>4:00 2016 US 여자 오픈 골프 3R | 1:20 베스트 가요쇼<br>2:20 월드 드레킹 명산                                           |                                                                                                                                                                                                                                                        |

|    | KBS 1                                                                                                            | KBS2                                                                                                                  | MBC                                                                              | SBS                                                                       | OBS                                                             | EBS                                                                                                                                                                                                                                                     |
|----|------------------------------------------------------------------------------------------------------------------|-----------------------------------------------------------------------------------------------------------------------|----------------------------------------------------------------------------------|---------------------------------------------------------------------------|-----------------------------------------------------------------|---------------------------------------------------------------------------------------------------------------------------------------------------------------------------------------------------------------------------------------------------------|
| 5  | 5:05 안녕 우리말<br>5:10 노정발매<br>6:00 KBS 뉴스<br>6:10 일약특목<br>6:30 이육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br>6:4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br>7:30 캡슐보이 | 5:00 튠튼생활체조<br>5:05 습득<br>5:25 시사기획 창<br>6:20 생생정보 스페셜<br>7:15 KBS 재난방송센터<br>7:25 영상앨범 산<br>7:55 연애가 중계<br>9:15 1박 2일 | 5:00 여영자 바다야<br>5:50 통일전광대<br>6:30 MBC 월드리포트<br>7:00 MBC 뉴스<br>7: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 6:00 SBS 뉴스<br>6:10 막 좋은 나이 스페셜<br>7:00 예니갤러리<br>7:30 일요특선 다크멘터리          | 6:00 테마 스페셜<br>6:50 OBS 경인포커스<br>7:50 경인 불 TV포럼                 | ☐ 오전<br>5:00 한국어 쉬워요<br>30 가족의 발견<br>6:00 성인문화교육 프로젝트 공부<br>하기 좋은 날<br>30 희망동경<br>7:00 꼬마버스 타요<br>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랜즈<br>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br>드벤처<br>9:00 뽀롱뽀롱 뽀로로<br>25 호기심나라 오기도<br>50 풀라워링 하트<br>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br>50 장학퀴즈<br>11:4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
| 8  | 8:00 KBS 뉴스<br>8:10 일요잔단<br>9:10 사람과 사람들                                                                         | 10:45 배틀 트립 스페셜                                                                                                       | 10:35 신비한 TV 서프라이즈<br>11:55 텔레몬스터                                                | 10:50 판타스틱 듀오                                                             | 10:35 일요드라마 <유나의 거리><br>11:45 OBS 뉴스<br>11:55 오 이맛이야            | ☐ 오후<br>12:30 취업<br>1:20 명의<br>2:15 일요시네마<br><타미네이타2,심판의 날><br>4:45 세계의 눈<br>5:35 세기태마기행<br>8:15 EBS 다크 프라임<br>11:00 한국영화 특선<br><아다다><br>1:3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
| 10 | 10:00 생로병사의 비밀<br>10:55 TV쇼 진품명품<br>11:55 슈퍼                                                                     | 12:05 배틀 트립 스페셜                                                                                                       |                                                                                  |                                                                           |                                                                 |                                                                                                                                                                                                                                                         |
| 12 | 12:00 MBC 뉴스<br>12:10 전국 노래 자랑<br>1:20 도전 K-스타트업 2016                                                            | 12:00 월화 드라마<br><뷰티풀 마인드>                                                                                             | 12:00 MBC 뉴스<br>12:10 출발! 비디오 여행<br>1:15 월화특별기획<br><몬스터 -30화>                    | 12:00 SBS 뉴스<br>12:10 특별기획<br><미녀 공심이 -17화><br>1:15 드라마 스페셜<br><원티드-5~6화> | 12:55 베스트 가요쇼<br>1:55 OBS 시네마<br><노다메 칸타빌레 Vol.1>               |                                                                                                                                                                                                                                                         |
| 2  | 2:20 해외결작다큐<br>3:10 독특한 소비자리포트                                                                                   | 2:10 주말 연속극<br><아이가 다섯>                                                                                               | 2:20 특별기획 <육중화 -20화><br>3:35 MBC 뉴스<br>3:45 혁신TV 연예통신                            | 3:30 SBS 뉴스<br>3:40 SBS 인기가요                                              | 3:55 엄마를 까무라치게 하는 50가<br>지 방법                                   |                                                                                                                                                                                                                                                         |
| 4  | 4:00 명견만리<br>4:55 안녕 우리말<br>5:00 KBS 뉴스<br>5:10 동물의 왕국<br>5:40 열린음악회 안동공연                                        | 4:50 해피 선데이                                                                                                           | 4:50 일박 1부<br><복면가왕>                                                             | 4:50 일요일이 좋다 1부<br><판타스틱 듀오>                                              | 4:45 OBS 뉴스<br>4:55 복,세,통.<br>5:25 와일드 블랙박스<br>5:35 닥터 S 건강의 정석 |                                                                                                                                                                                                                                                         |
| 6  | 7:00 KBS 뉴스<br>7:10 도전, 골든벨                                                                                      | 7:55 주말 연속극<br><아이가 다섯>                                                                                               | 6:45 일박 2부<br><진짜 사나이><br>7:55 MBC 뉴스데스크                                         | 6:30 일요일이 좋다 2부<br><린넨맨>                                                  | 6:35 경인 불 스페셜<br>7:45 OBS 뉴스 M                                  |                                                                                                                                                                                                                                                         |
| 8  | 8:05 다크 공감<br>9:00 KBS 뉴스9<br>9:40 역사저널 그날                                                                       | 9:15 개그 콘서트                                                                                                           | 8:45 주말 드라마<br><가화만사상>                                                           | 8:00 SBS 8 뉴스<br>8:45 SBS 주말드라마<br><그때, 그건가야>                             |                                                                 |                                                                                                                                                                                                                                                         |
| 10 | 10:30 취재파일 K<br>11:10 KBS 결착 다크멘터리                                                                               | 10:40 다크멘터리 3일<br>11:40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 10: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br><육중화><br>11:15 시사매거진 2580                                  | 9:55 특별기획<br><미녀 공심이><br>11:10 SBS 스페셜                                    | 10:10 애플의 전쟁, 애플<br>10:55 OBS 시네마<br><린넨맨>                      | 41년생 부당스러운 관심이 쏠리게 된다.<br>53년생 오늘은 정으로 맺어지는 날이니 인심을 써라.<br>65년생 마음을 비우면 모두 이루어진다.<br>77년생 생각했던 일이 조만간에 처리 되겠다.<br>89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분주해진다.                                                                                                                  |
| 12 | 12:10 KBS 뉴스<br>12:20 KBS 바둑왕전<br>1:40 걸어서 세계속으로                                                                 | 1:0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12:05 라디오스타 스페셜<br>1:05 MBC 네트워크 투션<br>2:00 MBC 월드리포트<br>4:00 UEFA 유로 2016 결승전   | 12:10 투자자들<br>4:00 2016 US 여자 오픈 골프 FR                                    | 1:10 전기현의 세내뮤직                                                  | 47년생 대화를 나누면서 거들어 줘라.<br>59년생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은 날이다.<br>7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할 것.<br>83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일이 풀리겠다.<br>95년생 일진이 흥한 날.                                                                                                                             |

TV 하이아이트

멕시코 혁명에 휘말린 두 형제

★ 고전영화극장 ‘장군에게 총알을’ <EBS 8일(금) 밤 11시40분> 1910년 멕시코 혁명기. 빌이 기차에 오르고, 춘초와 산토 형제가 이끄는 도적단은 정부군의 무기를 운송하는 열차를 습격한다. 도적단은 빌의 도움으로 무기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다. 춘초 일당은 군대 물자를 털어 혁명군에게 팔려는 것. 빌은 춘초에게 자신은 현상범으로 미국에 호송되고 있던 터라 도적단에 합류하려고 도와줬다고 얘기한다. 춘초 일당과 합류한 빌은 산미구엘 마을에 당도하는데



그곳은 지주의 횡포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지주를 처형하려고 한다. 춘초는 마을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빌은 떠나자고 한다. 춘초는 주민들이 군대에 학살당하게 될지 모르니 동생 산토와 남기로 한다.

노다메, 협연의 꿈 이룰 수 있을까?

★ OBS시네마 ‘노다메 칸타빌레 Vol.1’ <OBS 10일(일) 오후 1시55분> 파리에 온 노다메와 치아키. 노다메는 파리 음악원 평가 시험을 앞두고 연습에 열중한다. 한편 치아키는 스승인 슈트레제만이 지휘를 맡았던 말레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게 된다. 말레오케스트라는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로 지금은 형편없는 실력으로 단골관객들마저 외면하는 붕괴직전의 상태. 콘서트 마스터 토마 시몬은 어린 치아키를 무시하며 뒷배를 부린다. 첼레스타마저 그



낯선 이에게 선물주는 한 남자의 사연

★ 시사교양 ‘궁금한 이야기 Y’ <SBS 8일(금) 오후 8시55분> 한 달에 한 번, 여의도에 나타나는 남자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선물을 나눠주고 사라진다. 사과, 귤 등의 과일, 우산, 목도리 등 공산품을 나눠줄 때도 있다. 그는 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일까? 그가 선물을 줄 때는 작은 쪽지 한 장도 같이 준다. 쪽지에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었는데, 빼놓지 않고 본인의 집 주소도 적어놓았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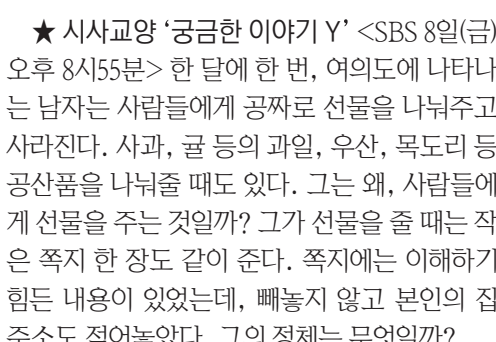
오싹한 귀신의 집 꾸며 ‘손님맞이’

★ 연예오락 ‘무한도전’ <MBC 9일(토) 오후 6시25분> 공포특집 ‘귀곡성’이 방송된다. 멤버들이 직접 귀신의 집을 꾸며 손님들을 초대하는 콘셉트로, 귀신의 집에 배치할 아이템을 차지하기 위해 공포퀴즈를 펼쳤다. 각각 다른 수준의 공포 아이템을 차지한 멤버들은 자신이 꾸민 귀신의 집을 찾아 손님들을 놀라게 할 계획을 구상했다. 몇몇 멤버는 자기 집을 돌아보다 본인이 더 놀라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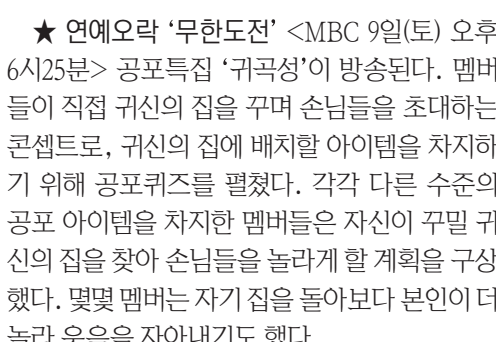
운동으로 이별 아픔 달래는 상민

★ 드라마 ‘아이가 다섯’ <K2TV 9일(토) 오후 7시55분> 상태와 미정은 아이들 교육문제로 고민이 많고, 미정은 수와 빈이가 외가에서 개인 레슨 받는 걸 허락해준다. 상민은 이별의 아픔을 무 운동에만 매달리고, 태민은 학교에서 자신을 괴하는 연태를 붙잡고 상민의 상향을 전하며 두 사람의 관계회복을 위해 애쓴다. 우영과 우리는 미정이 수와 빈이만 감싸는 것 같아 불만이 쌓이고, 인철은 우리에게 휴대폰을 선물한다.



마을버스 ‘은수’ 넓은 세계로 나간다

★ 시사교양 ‘다큐 공감’ <K1TV 10일(일) 오후 8시45분> 서울 혜화역과 종로를 오가던 ‘종로 12번’ 마을버스 ‘은수’. 회사의 이름을 딴 ‘은수’는, 대학로와 종로에서 대학병원까지 정해진 공간을 다림질 챗바퀴 돌 듯 오가며 9년 6개월을 보냈다. 은수는 6개월만 지나면 곧 폐차될 운명이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폐차될 운명에 처했던 ‘은수’가 익숙한 공간, 정해진 속도를 벗어나 앞날을 알 수 없는 세계여행길에 나섰다.



오늘의 운세 7월 8일(음 6월 5일)



<♋>

36년생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다.  
48년생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라.  
60년생 가끔씩이면 먼 길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겠다.  
72년생 지나간 일로 마음 쓰지 말 것.  
84년생 긴장하면 될 일도 안 된다.



<♌>

37년생 어려웠던 일이 해결된다.  
49년생 투자 운은 매우 좋다.  
61년생 오히려 눈이 거슬리는 사람이 자주 나타날다.  
73년생 인연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85년생 공권적으로 무난한 하루가 되겠다.



<♍>

38년생 너무 큰 목표는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50년생 하는 일에 변동이 예상된다.  
62년생 실근 걱정은 오히려 해가된다.  
74년생 매사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것.  
86년생 조건을 구하여 따르면 이롭다.



<♎>

39년생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날.  
51년생 상사와 의견대립 생기겠다.  
63년생 운수는 평탄하고 신수도 좋다.  
75년생 실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대우지 말 것.  
87년생 하던 일을 꼼꼼히 점검해봐라 할 때.



<♏>

40년생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을 조심하라.  
52년생 뒷다리가 미루어지는 일진이다.  
64년생 방해물이 사라지고 길이 열리겠다.  
76년생 지켜보는 이가 있으니 행동을 조심할 것.  
88년생 할 일이 있다면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



<♐>

41년생 부당스러운 관심이 쏠리게 된다.  
53년생 운은 정으로 맺어지는 날이니 인심을 써라.  
65년생 마음을 비우면 모두 이루어진다.  
77년생 생각했던 일이 조만간에 처리 되겠다.  
89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분주해진다.



<♑>

42년생 계약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살필 것.  
54년생 옳은 방식이라면 주장하라.  
66년생 오늘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날.  
78년생 서쪽, 북쪽으로는 길을 떠나지 말 것.  
90년생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 말 것.



<♒>

43년생 중요한 약속이 접혀있다.  
55년생 사소한 실수에 마음 상하지 말고 웃어넘길 것.  
67년생 아껴두었던 자금이 있다면 지금 사용할 것.  
79년생 재물 생기고 자손에 경사가 있겠다.  
91년생 곧 호전될 것으니 걱정 말 것.



<♓>

44년생 직극적으로 도움 줄 사람이 나타난다.  
56년생 상황이 답답하게 진행된다.  
68년생 새로운 것보다 낯것을 추구할 것.  
80년생 위아래로 구름이 끼었으니 운전자중하라.  
92년생 사람들 많은 일터 가면 파곤한 일만 생기겠다.



<♈>

45년생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고 경사가 거듭된다.  
57년생 충동적 구매는 삼갈 것.  
69년생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임을 잊지 말 것.  
81년생 분수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좋다.  
93년생 배우자와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다.



<♉>

46년생 오늘은 남을 위해 노력하는 날.  
58년생 돈거래는 불리하니 문서, 서류는 유리.  
70년생 의외의 행운이 찾아오는 날.  
82년생 어려운 일에 직면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  
94년생 갖추어진 기반으로 한만 수투를 걸 때.



<♊>

47년생 대화를 나누면서 거들어 줘라.  
59년생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은 날이다.  
7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할 것.  
83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일이 풀리겠다.  
95년생 일진이 흥한 날.

TV 하이라이트

멕시코 혁명에 휘말린 두 형제

★ 고전영화극장 ‘장군에게 총알을’ <EBS 8일(금) 밤 11시40분> 1910년 멕시코 혁명기. 빌이 기차에 오르고, 춘초와 산토 형제가 이끄는 도적단은 정부군의 무기를 운송하는 열차를 습격한다. 도적단은 빌의 도움으로 무기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다. 춘초 일당은 군대 물자를 털어 혁명군에게 팔려는 것. 빌은 춘초에게 자신은 현상범으로 미국에 호송되고 있던 터라 도적단에 합류하려고 도와줬다고 얘기한다. 춘초 일당과 합류한 빌은 산마구엘 마을에 당도하는데



그곳은 지주의 횡포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지주를 처형하려고 한다. 춘초는 마을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빌은 떠나자고 한다. 춘초는 주민들이 군대에 학살당하게 될 지 모르니 동생 산토와 남기로 한다.

노다메, 협연의 꿈 이룰 수 있을까?

★ OBS시네마 ‘노다메 칸타빌레 Vol.1’ <OBS 10일(일) 오후 1시55분> 파리에 온 노다메와 치아키. 노다메는 파리 음악원 평가 시험을 앞두고 연습에 열중한다. 한편 치아키는 스승인 슈트레제만이 지휘를 맡았던 말레오키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게 된다. 말레오키스트라는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로 지금은 형편없는 실력으로 단골관객들마저 외면하는 붕괴직전의 상태. 콘서트 마스터 토마 시몬은 어린 치아키를 무시하며 텃새를 부린다. 첼레스타마저 그



만든 최악의 상황에서 치아키는 노다메에게 첼레스타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하고, 노다메는 협연 생각에 기뻐한다. 그러나 단원들은 유명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기를 바라고, 노다메는 쓸쓸히 연습장을 떠난다.



낮선 이에게 선물주는 한 남자의 사연

★ 시사교양 ‘궁금한 이야기 Y’ <SBS 8일(금) 오후 8시55분> 한 달에 한 번, 여의도에 나타나 는 남자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선물을 나눠주고 사라진다. 사과, 귤 등의 과일, 우산, 목도리 등 공산품을 나눠줄 때도 있다. 그는 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일까? 그가 선물을 줄 때는 작은 쪽지 한 장도 같이 준다. 쪽지에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었는데, 빼놓지 않고 본인의 집 주소도 적어놓았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싹한 귀신의 집 꾸며 ‘손님맞이’

★ 연예오락 ‘무한도전’ <MBC 9일(토) 오후 6시25분> 공포특집 ‘귀곡성’이 방송된다. 멤버들이 직접 귀신의 집을 꾸며 손님들을 초대하는 콘셉트로, 귀신의 집에 배치할 아이템을 차지하기 위해 공포퀴즈를 펼쳤다. 각각 다른 수준의 공포 아이템을 차지한 멤버들은 자신이 꾸민 귀신의 집을 찾아 손님들을 놀라게 할 계획을 구상했다. 몇몇 멤버는 자기 집을 돌아보다 본인이 더 놀라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운동으로 이별 아픔 달래는 상민

★ 드라마 ‘아이가 다섯’ <K2TV 9일(토) 오후 7시55분> 상태와 미정은 아이들 교육문제로 고민이 많고, 미정은 수와 빈이가 외가에서 개인 레슨 받는 걸 허락해준다. 상민은 이별의 아픔으로 운동에만 매달리고, 태민은 학교에서 자신을 피하는 연태를 붙잡고 상민의 상황을 전하며 두 사람의 관계회복을 위해 애쓴다. 우영과 우리는 미정이 수와 빈이란 감싸는 것 같아 불만이 쌓이고, 인절은 우리에게 휴대폰을 선물한다.

마을버스 ‘은수’ 넓은 세계로 나간다

★ 시사교양 ‘다큐 공감’ <K1TV 10일(일) 오후 8시5분> 서울 해와역과 종로를 오가던 ‘종로 12번’ 마을버스 ‘은수’. 회사의 이름을 딴 ‘은수’는, 대학로와 종로에서 대학병원까지 정해진 공간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오가며 9년 6개월을 보냈다. 은수는 6개월만 지나면 곧 폐차될 운명이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폐차될 운명에 처했던 ‘은수’가 익숙한 공간, 정해진 속도를 벗어나 앞날을 알 수 없는 세계여행길에 나섰다.

오늘의 운세 7월 8일(음 6월 5일)

심재현 원장 (김색향·수원청학자역술사)  
靑鶴主人 ☎010-5393-0358



|                                                                                                                                                |                                                                                                                                                |
|------------------------------------------------------------------------------------------------------------------------------------------------|------------------------------------------------------------------------------------------------------------------------------------------------|
| 36년생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다.<br>48년생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라.<br>60년생 가끔씩이면 면 길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겠다.<br>72년생 지나간 일로 마음 쓰지 말 것.<br>84년생 건강적인 될 필요 안 된다.               | 42년생 계약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볼 것.<br>54년생 옳은 방식이라면 주장하라.<br>66년생 오늘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날.<br>78년생 서쪽, 북쪽으로는 길을 떠나지 말 것.<br>90년생 주변 사람들을 잊지 말 것. |
| 37년생 어려웠던 일이 해결된다.<br>49년생 투지 운은 매우 좋다.<br>61년생 오늘따라 눈이 거슬리는 사람이 자주 나타나겠다.<br>73년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br>85년생 금전적으로 무난한 하루가 되겠다.                 | 43년생 중요한 약속이 잡히겠다.<br>55년생 사소한 실수로 마음 상하지 말고 웃어넘길 것.<br>67년생 어깨두들던 자금이 있다면 지금 사용할 것.<br>79년생 재물 생기고 자손에 경사가 있겠다.<br>91년생 곧 호전을 맞이하 걱정 말 것.     |
| 38년생 너무 큰 목표는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br>50년생 하는 일에 번뜩임이 예상된다.<br>62년생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해가된다.<br>74년생 매사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것.<br>86년생 조언을 구하여 따르면 이롭다.             | 44년생 적극적으로 도움 줄 사람이 나타난다.<br>56년생 상황이 답답하게 진행된다.<br>68년생 새로운 것보다 옛것을 추구할 것.<br>74년생 위아래로 구름이 끼었으니 운전자중하라.<br>92년생 사람들과 많은 곳에 가면 파란만 일만 생기겠다.   |
| 39년생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날.<br>51년생 상사와 의견대립 생기겠다.<br>63년생 운수는 평탄하고 신수도 좋다.<br>75년생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태우지 말 것.<br>87년생 하던 일을 꼼꼼히 점검해보야 할 때.           | 45년생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고 경사가 거듭된다.<br>57년생 충동적 구매는 삼갈 것.<br>69년생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임을 잊지 말 것.<br>81년생 분수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좋다.<br>93년생 배우자와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다.      |
| 40년생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을 조심하라.<br>52년생 월등하나 미루어지는 일진이다.<br>64년생 방해물이 사라지고 길이 열리겠다.<br>76년생 지켜보는 이가 있으니 행동을 조심할 것.<br>88년생 할 일이 있다면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 | 46년생 오늘은 남을 위해 노력하는 날.<br>58년생 돈거래는 불리하나 문서, 서류는 유리.<br>70년생 의외의 행운이 찾아오는 날.<br>82년생 어려운 일에 직면하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br>94년생 갖추어진 기반으로 한판 승부를 걸 때.   |
| 41년생 부담스러운 관심이 쏠리게 된다.<br>53년생 오늘은 정으로 맺어지는 날이니 인심을 써라.<br>65년생 마음을 비우면 모두 이루어진다.<br>77년생 생각했던 일이 조만간에 처리 되겠다.<br>89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분주해진다.         | 47년생 대화를 나누면서 거들어 처리.<br>59년생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은 날이다.<br>7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할 것.<br>83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일이 풀리겠다.<br>95년생 일진이 흥한 날.                    |

영화 & 세상  
-부산행-

영화 '부산행'은 2013년에 개봉한 '설국열차', '감기', '월드워 Z'를 모두 합친 느낌이다.

극 중 사건이 열차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배경이 KTX 열차라는 점이 '설국열차'와 비슷하고,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사태를 담은 것은 '감기', '월드워 Z'를 닮았다.

'부산행'은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자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에 나선다는 내용의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다.

재난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 극한의 감정 폭발, 혼자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기심과 갈등, 인간의 양면성 등이 나오지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탄탄한 줄거리 구성은 이 영화의 매력이다.

알고 보면 좋은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우선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를 표현한 특수분장팀의 실력과 좀비들의 행동 연기를 지도

## 부산으로 가는 열차, 살아있는 시체가 났다

인간VS 좀비 사투 담은 재난 블록버스터  
말 지키는 아빠 '공유' 액션 연기 등 기대

한 재즈댄스 안무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실감나는 장면들은 일단 합격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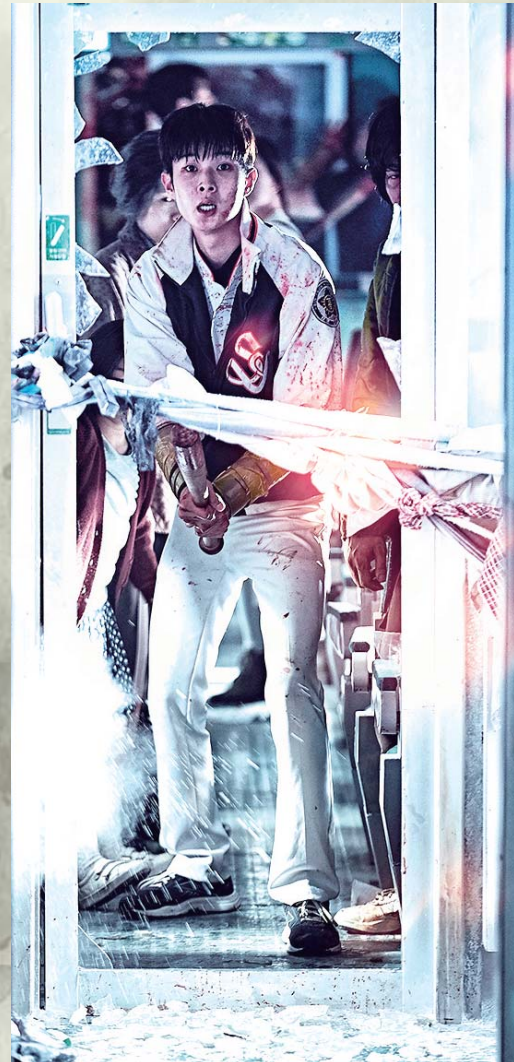
메가폰을 잡은 연상호 감독은 '돼지의 왕(2011)' 등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 작품을 연출해 명망이 높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 비주역의 완성도도 꽤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에 미친 펀드매니저 석우 역을 맡은 공유가

주연 배우로 나온다. 부산행 KTX에 탑승하는 딸 수안을 재난 상황에서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아빠로 등장해 액션 연기를 펼친다. 또 만삭의 몸에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성경 역의 배우 정유미,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뜨거운 사투를 벌이는 남편 상화 역을 맡은 마동석의 연기도 좋다.

올해 상반기에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었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부산행이 1천만 영화 계보를 이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경일 기자 kik@khiolbo.co.kr



## 영화공간 주관

환상의 빛

109분 | 드라마



인천 남구의 예술영화관 '영화공간 주관'에서 미야모토 테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환상의 빛'이 7일부터 12일까지 상영된다. 학창시절 행방불명된 할머니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큰 유미코(에스미 마키코 분)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동네 친구인 이쿠오(아사노 타다노부)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던 중 상상지 못한 사건이 찾아온다. 다음 아들 남편 이쿠오의 자살. 세월이 흘러 무뎌진 상처를 안고 재혼까지 한 유미코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쿠오의 기억으로 괴로워한다는 줄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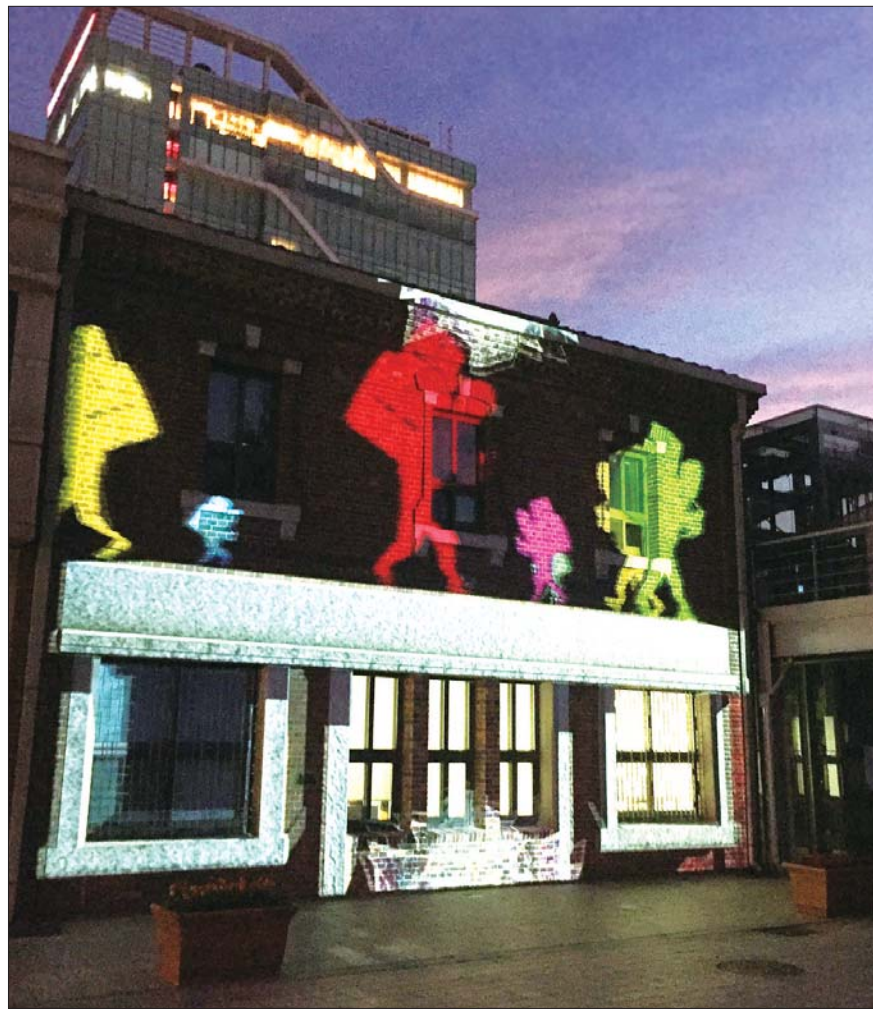
주중 6천 원·주말 8천 원. 월요일 휴관. 문의: 032-427-6777

김경일 기자 kik@khiolbo.co.kr

## 금주의 박스오피스

| 순위 | 영화명            | 점유율   | 누적관객수      |
|----|----------------|-------|------------|
| 1위 | 굿바이 싱글         | 30.4% | 90만8천947명  |
| 2위 | 레전드 오브 타잔      | 19.8% | 55만2천175명  |
| 3위 | 사냥             | 13.8% | 53만3천577명  |
| 4위 |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 | 9.1%  | 139만2천825명 |
| 5위 | 정글북            | 8.1%  | 247만7천625명 |

<자료=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영상 아트쇼로 만나는 인천 역사 인천아트플랫폼에 특별한 볼거리가 생겼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로, 야경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는 역사문화 영상 아트쇼를 볼 수 있다. 인천의 근대역사를 영상으로 구성한 역사문화 영상 아트쇼를 인천문화재단이 준비해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에서 매주 금요일과 주말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0분씩 2회 상영 중이다.

김경일 기자 kik@khiolbo.co.kr

## 몸짓으로 전하는 '슬픔·기쁨·행복'

인천시립무용단 '초빙안무가전II'

안무가 최지연 '해변의 여인' 공연

오는 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시립무용단의 특별기획공연 '초빙안무가전II-해변의 여인'이 오는 14일 오후 8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안무가와 함께 창작 작품을 만들어 보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초빙안무가전II'에 초청된 주인공은 안무가 최지연이다.

한국 춤 창작시대를 연 '창무회'의 차세대 주자인 최지연은 작품 '해변의 여인'에서 연출을 맡아 연극적 기법과 춤이 공존하는 안무를 선보인다.

'해변의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식을 기다리거나 못 잊을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을 그린 작품이



안무가 최지연.

다.

총 7개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기다림이 결국 삶이었으며, 기다림 속에 슬픔과 비극가는 기쁨과 행복 또한 담겨 있음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입장료 1만 원. 문의: 032-420-2788

김경일 기자 kik@khiolbo.co.kr



## 한 폭의 수채화로 무더위 '홀홀'

안산시 사2동 김용경 작가 전시회

안산시 사2동은 안산지역 수채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경 선생을 초대해 7월 한 달 동안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사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로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감골마을신문 발행을 비롯한 문화예술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사2동 주민센터 내에

항아리 갤러리를 마련해 연중 지속적으로 지역 작가 초대전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용경 작가는 경기수채화협회, 안산환경미협, 조각보회 등에서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지역 대표 작가로, 이번 개인전에서는 색채가 아름다운 수채화 및 유화 30여 점을 전시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olbo.co.kr

## 고려 지킨 산성... 발길 오라하네

경기옛길 탐방 프로 참가자 모집

23일 죽주산성·봉암사지 등 답사

문화유산 강의~보물찾기도 진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옛길 산성탐방 프로그램을 오는 23일 영남길 8구간(죽주산성길)에서 운영하고 참가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경기옛길 산성탐방은 '2016년 4월 4색 테마 탐방 프로그램'의 네 번째 순서로, '고려의 향기 따라 걷는 도보'를 주제로 진행된다.

산성탐방 당일 오전 9시 경기문화재단에서 모여 죽주산성, 매산리 석불입상, 봉암사지 등을 답사한다.

이번 산성탐방에서는 '월정사 소장 고려조대장경 인경본에 대하여', '백가류찬의 편찬과 간행', '조선시대 관음신

앙 관련 불서 간행' 등의 연구를 진행한 김방을 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고문헌관리학 박사)의 문화유산 강의와 죽주산성 일원에서 '문화유산 속 보물찾기' 행사도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옛길 공식 카페(cafe.naver.com/oldroad)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카페 내 행사신청란을 통해만 된다.

한편,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신경준이 1770년에 집필한 '도로그'에서 언급한 총 6개의 길(삼남로·의주로·영남로·강화로·경흥로·평해로)을 기반으로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 경기문화재단이 힘을 합쳐 조성한 역사문화 탐방로다.

현재 경기옛길 삼남길·의주길·영남길이 조성돼 역사적·경관적·민속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문의: 031-231-8574

박노훈 기자 nhp@khiolbo.co.kr



## 놀거리·배울거리가 가득한 수원

## 낮 '내일의 서재' 명사 강연

수원박물관은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명사 특강 '내일의 서재'를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교사와 학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안희준 명예교수의 '고국으로 돌아온 검재정신 화첩'을 시작으로 후지이 다케시(역사문제연구소), 정호승 시인, 임진모 음악평론가, 박시백 만화가 등 예술, 문학, 사회 등 각 분야 명사가 강연한다.

강연은 오후 3시부터 시작하며, 특강 당일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박물관(031-228-4150)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박종대 기자 pjd@khiolbo.co.kr

## 밤 '신나는 꿈나무 동화마당' 즐기며 화성행궁 야경 감상

계'를 선보인다.

이이 주간 공연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극단 달빛의 인형극 '호랑이 뱃속에서 생긴 일' 그리고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그림자로 만나 볼 수 있는 극단 영의 '별주부전', 수원화성을 건축한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단 애기몽골의 인형극 '아들 정조'를 만날 수 있다.

또 수원여대 학생들이 선보이는 인형극 '종이봉지 공주', 매직켓이 마련한 매직세도우쇼는 물론 모래와 빛의 만남인 샌드아트 및 라이트 드로잉 공연 등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이색 장르의 공연예술 무대도 선보인다.

동화마당의 모니터링 전문평가단은

"아이들이 수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행궁을 둘러보는 동시에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다채로운 공연 관람을 통해 문화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선보여지는 동화마당은 야간 투어 프로그램 '달빛동행'이 실시되는 8월 18일에는 장소

를 옮겨 신평루에서 진행된다. 한편, 시민 및 관광객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화·일요일 화성행궁 야간 개장을 실시하며, 오후 9시까지 야간 공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심연규 기자 sims@khiolbo.co.kr

## 인사

■ 안양시 | ◇전보 <5급>▶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형주 홍순석 ▶मान보건과장 최명복 ▶동안보건과장 이인숙 ▶수도행정과장 박창렬 ▶환경보전과장 김현열 ▶교통정책과장 홍삼식 ▶मान구 건축과장 김익호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신경호 ▶〃 환경위생과장 김명자 ▶〃 건설과장 하성철  
◇승진 <5급>▶안양2동장 박종은 ▶안양9동장 신윤숙 ▶비산2동장 신정원 ▶부흥동장 황인환 ▶귀인동장 이순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경무과장 김숙진 ▶정보화장비담당관 박재완 ▶112종합상황실장 서민 ▶수사과장 박승환 ▶형사과장 서상귀 ▶경비교통과장 광영진 ▶고양서장 김병우 ▶남양주서장 김충환 ▶동두천서장 양영우 ▶가평서장 정두성 ▶일산서부서(준비요원) 송병선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홍보담당관 이호영 ▶112종합상황실장 고창경 ▶부천소사서장 이명훈 ▶용인서부서장 박주진 ▶김포서장 최재천 ▶이천서장 신상석 ▶안성서장 김종식 ▶여주서장 최정현

## 알림

▶전국 어르신 검토교실대회 및 페스티벌 행사=8일(금) 오전 10시 광명시민체육관 오픈아트홀. ▶2030 파주도시 기본계획 공청회=8일(금) 오후 2시 시민회관 소공연장. ▶제38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16 서울·성남지역 예선대회=9일(토) 오전 10시 서울공향(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의왕시장배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9일(토) 오전 10시 국민체육센터. ▶파주시 제9회 정선건강문화제=9일(토) 오후 1시 30분 운영행복센터.

## 류호열 제19대 시흥시 부시장 취임식 가저

시흥시 제19대 류호열 부시장이 7일 시청 늑내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류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70만 인구의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흥시에 부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김윤식 시장의 시정철학 아래 미래를 키우는 자치와 분권의 도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 부시장은 경기도(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그리고 최근까지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오랜 공직생활 경험으로 판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관리로 잘 알려져 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복지시설 찾아 봉사·기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7일 출범 첫 일정으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도의회 정경열(더.안양4)신임 의장은 이날 당선 직후 도내 소외계층을 찾아 재능기부에 나서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 음악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 의장은 화성시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인 ‘묘화원’을 찾아 90여 명의 노인들에게 음악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에 앞서 정 의장은 묘화원에 휠체어 3대와 쌀 200kg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호겸(더·수원6)신임 부의장은 수원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동광원’을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에게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보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 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임원 워크숍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2016 비전 공유를 위한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합회 소속 전·현직 임원단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연합회 사업 방향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이업종 간 융합 관련 세미나와 교보생명과사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 외롭고 병든 이들 손잡아 준 희생정신 ‘박수’

안산단원보건소 201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최우수상  
취약층 재가장애인 일대일 방문 치료 서비스 전국서 인정

안산단원보건소는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이 주최하는 ‘201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국 통합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7일 밝혔다. 단원보건소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성과대회에

참가해 ‘우리 지역 재활전문가 담쟁이봉사단과 함께 일대일 매칭 찾아가는 통합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우수 재활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2015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통합 성과대회는 전국 보건소와 권역 재활병원의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분석해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는 재활사업 평가대회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단원보건소의

‘담쟁이봉사단 일대일 매칭 찾아가는 통합재활서비스’는 중증장애인, 홀몸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가장애인을 자원봉사자와 일대일로 매칭하고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 재활상담, 교육, 말벗 등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매우 높은 특화 재활프로그램이다.

‘담쟁이봉사단’은 지역사회 재활전문가인 물리치료사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배려와 희생과 사랑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의료 자원봉사단이다. 단원보건소는 지난해 ‘담쟁이봉사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자 91명을 대상으로 연간 250회 가정방문을 실시했으며, 자가재활운동기를 42가구에 설치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연계해 총 5천827



회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로봇승마 재활운동 프로그램’과 ‘장애인 연극교실 프로그램’을 특화 재활사업으로 선정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권을 강화

하고 재활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hoilbo.co.kr

## ‘정보의 바다’ 항해하는 기쁨 누리도록 응원

## SK인천석유화학, 재활용 컴퓨터 취약계층에 기탁

SK인천석유화학(대표이사 이재한)이 7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를 통해 서구지역 어려운 이웃의 교육 지원을 위한 재활용 노트북 컴퓨터 총 1천150대를 전달했다.

‘사랑의 PC 나눔’ 전달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고대환 SK인천석유화학 경영지원실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한 컴퓨터는 임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해 정비와 청소를 마친 것으로 서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전달된다.

강범석 구청장은 “노트북 컴퓨터 활용을 통해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기증해 준 SK인천석유화학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고대환 SK인천석유화학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사랑의 PC 나눔’에는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6개 사



가 함께 참여했다”며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들의 사랑이 담긴 컴퓨터를 통해 서구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폭넓은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3월에도 재활용 PC 100여 대를 서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으며, 교육 및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동식 기자 dshan@khihoilbo.co.kr



## 인천 계양구 8개 기관, 치매매협의체 구성 협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8개 기관의 대표자들이 지난 6일 계양구청에 모여 계양구치매협의체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 박정모 계양구치매통합지원센터장과 최원호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한인철 계양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송형식 계양구 노인회장, 김소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장, 김성열 계양구 약사회장, 이상준 계양구 의사회장, 황병태 계양구 한의사회장은 계양구를 치매안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일 기자 kik@khihoilbo.co.kr



## 강화 하점면 새마을부녀회 저소득층에 이불 전달

강화군 하점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정순)는 지난 6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홀몸노인 40가구에 이불 40채(16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상복 강화군수, 이동수 하점면장, 하점면 부녀회 등 20여 명이 참여해 각 마을에 이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달한 이불 40채는 2016 전달래촉제 기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구입해 의미를 더했다.

강화=김현호 기자 kimhho2@khihoilbo.co.kr



## 인천항만공 수출 증가 포워드 대상 홍보설명회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는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인천항 수출 증가 포워드(화물운송추진) 대상 홍보설명회를 가졌다.

공사는 인천신항 개장과 미주 및 중동 항로 개설 등 인천항 물류환경과 서비스 개선사항을 적극 설명하고, 인천항을 지속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 사랑 넘치는 7월의 크리스마스

## 경기북부 공동모교회, 저소득층 여름 생필품 지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분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7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추진한 이번 사업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사회복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저소득가정을 위한 여름이불, 선풍기, 살충제 등을 포장했다. 포장된 1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은 북부지역 내 저소득가정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 나무 유래 배우며 숲과 더 가까이

## 강화 석모도수목원 무료 숲 체험 프로그램 호응

강화군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가 초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석모도수목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석모도수목원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삼산 해명초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와 함께 석모도수목원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학생들은 수목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이름 유래, 전설 등 나무 이야기와 숲과 나무의 가치, 수목원의 기능 등 다양한 해설을 들으며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해명초 강세구 교사는 “아이들이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숲에서 힐링하고 가는 것 같



한해영 본부장은 “장마와 무더위에 지쳐 있는 저소득가정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여름나기 용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북부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아서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왕민에 소장은 “아이들이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좋다”며 “앞으로 석모도수목원 숲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힘쓰고, 관람객에게 더 좋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화=김현호 기자 kimhho2@khihoilbo.co.kr

# ‘학생 중심 교육’ 절반의 성공… 자유학기제 강화 힘쓸 것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2년간을 씬 없이 달려 왔다. ‘제16대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부터다. 임기 ‘반환점’을 둔 것이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9시 등교’ 시행과 ‘경기 꿈의학교’ 운영 등 학생 중심의 현장교육을 강조해 왔다. 다양한 교육정책 변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 속된 말로 ‘치맛바람’이란 표현도 한다. 어머니들의 이 같은 노력이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일궈 냈다는 것에 아무도 ‘토(討)’를 달지 못한다. 이 교육감도 이를 마음속에 새긴 지 오래다. 그는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열을 이어가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미래상과 변화도 시대 흐름에 맞게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교육감을 만나 경기교육의 현안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 봤다.

〈편집자 주〉



예비 대학·꿈의학교로 사교육 잡고  
자유학년제 확대해 체험학습 강화  
스스로 하고 싶은 일 찾기에 ‘초점’

논란 겪고 있는 교육재정·누리과정  
정상화 위해 별도재원 마련 등 절실  
법률개정으로 ‘유아·보육’ 통합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는데 소감은.  
▶지난 2년을 되돌아볼 때 가장 많이 하게 된 생각은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변화의 중심이 돼야 하는 학교는 소통이 중요한 공간임에도 실제 현장은 너무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보람되는 일은 9시 등교를 통해 학생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학교에서 학생 중심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인데도 그동안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모습들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힘써 왔다. 다만, 스스로 평가할 때 학생 중심의 교육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 같다.

–최근 열렸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아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고 있는 시대다. 교육의 근본을 바꿔야 할 때라는 얘기다. 여전히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대로 교실 안에만 갇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지 의문만 생긴다. 야자가 그렇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 본인의 의지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50%는 부모님이 시켜서, 35%는 학교가 시키니까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그동안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너무 부족했다는 뜻이다. 그동안 학생을 강제의 대상으로 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야자 폐지 발표 이후 제기된 사교육 문제 등 비판들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비 대학 운영이다. 물론 이미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이 정규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기간 해당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예비 대학이라는 (안)은 있었다.

제가 주장하는 예비 대학은 이와 달리 저녁에 2시간씩 일주일간 인문학과 IT 및 예술 분야 등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과목별로 미리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수업 방법 등이 고등학교와 전혀 다르다. 예비 대학을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먼저 접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때부터 제대로 자기 완성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안)이 성공하면 사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꿈의학교다. 그동안은 초·중학생들이 중심이었지만 고교생도 이를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찾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학습을 해 나간다면 이 역시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대안은 공공도서관 및 지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강좌 등을 개설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면 이제껏 우리가 얘기하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동안 못 찾은 것뿐이다.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 예고했는데.

▶현재의 교과과정은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진행 중이다. 자유학기제는 지난해까지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책이다. 한 학기마다 진행한다고 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과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고교 과정까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여러 보완은 필요하다. 교과과정도 재편성해야 하고,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먼저 체험학습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인프라인 것이다. 전문가 임금과 이동 수단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볼 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자유학기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제안을 했다.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미 여러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3개 정당 대표들과 교육 담당자들을 만나 세 가지 과제를 분명히 밝혔다. 첫째 과제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개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사실 누리과정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어렵다 보니 시행령을 통해 실시해 왔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누리과정이 교육감의 사업이 되려면 교

육감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법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의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지사 산하에서 교육부와 교육감 산하로 들어와야 한다. 결국 유보 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별도의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체 교부금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교부금’이란 학교와 학생을 위해 써야 할 돈이다. 이 중 10분의 1이 누리과정에 쓰여지면 학생을 위한 교육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누리과정은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꼭 해야 할 사업이다. 별도의 재원 확보가 안 되면 누리과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껏 우리가 생각해 오던 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미래 준비도 힘들다. 학교교육이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후반기 과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전송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사진=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최고의 맛, 최고의 육질 강화갯벌장어영어로조합법인

강화도 청정갯벌에서 75일 이상 순치시킨 강화갯벌장어 양식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 자가운영시스템 시설과 함께 직영식당 또한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강화갯벌장어를 만나보세요.



손질된 강화갯벌장어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 할 수 있도록  
뼈와 내장을 손질한 강화갯벌장어



강화갯벌장어엑기스  
대추, 생강, 마늘, 오기피를 넣은  
영양만점 장어 엑기스



강화갯벌장어통조림  
완전히 익힌 갯벌장어를 먹기좋게 자른  
강화 갯벌장어통조림



건새우, 새우가루 100%  
첨가물NO 강화도에서 잡은 홍새우를  
생물 건조한 건강한 먹거리

인천 강화군 내가면 중앙로 1277    Tel\_ 032)934-8500    H.P\_ 010)7287-1040

# 인천, 선제골 싸야 웃겠는 걸

## 내일 광주 원정도 승승장구?



최근 리그 2연승을 달리고 있는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번에는 광주를 상대로 승점 3점에 도전한다.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9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19라운드 광주FC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 GK 조수혁 복귀·조병국 가세

### 수비 안정화로 최소 실점 한몫

### 먼저 골 내주면 흔들리는 광주

### 인천 악점공략 전술 짜면 승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천의 변화는 부활한 수비다. 지난해 32실점으로 K리그 클래식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한 인천은 올 시즌 초반 끌

퍼 조수혁의 공백과 수비진의 반복되는 부진으로 대량 실점을 내주면서 리그 최하위에 머물기도 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끌기퍼 조수혁의 복귀와 베테랑 조병국의 가세로 빠르게 안정을 찾으며 최근 7경기에서 4승2무1패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 단 4실점만을 내줬다.

인천의 목표는 상위 스플릿이다. 인천은 18라운드 현재 승점 18점으로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표면적으

로는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지만, 상위 스플릿 마지막 6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27)와의 승점 차는 9점이다.

인천은 광주전을 시작으로 FC서울, 울산 현대, 포항 스틸러스, 성남 FC 등을 상대한다. 모두 인천보다 높은 순위와 나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는다면 충분히 격차를 좁힐 수 있다.

광주는 서울에서 이적한 정조국과

김민혁이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기존 이찬동·여름·송승민 등의 꾸준한 활약과 윤보상·홍준호 등 신예들도 두각을 보이면서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그러나 약점은 있다. 광주는 올 시즌 선제골을 내준 경기에서 1승3무6패를 거두면서 선제골을 내주면 결과가 유독 나쁘다. 인천이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충분히 승점 3점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윤택 기자 cyt@khiolbo.co.kr

# 두 개의 수원, 승리 절박해요

## 수원 삼성vs수원FC 총력전



프로축구 역사상 두 번째 지역대비인 수원더비에 나서는 수원 삼성 서정원 감독과 수원FC 조덕제 감독의 승리 열망이 대단하다.

수원 삼성 서정원 감독은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홈경기 수원더비 기자회견에서 “어제 비가 오다 해가 비춘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는 신호일 것”이라며 “이번 더비를 기회 삼아 분명히 반동의 계기가 돼 승리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조덕제 감독은 “지난주에 치러진 리그 최강으로 불리는 전북 현대전에서

## 두 팀 모두 리그 순위 곤두박질

### 10일 2차 дер비 3승점 확보 전쟁

6연속 경기무득점에 시달리다 2골을 넣으며 비겼는데, 이를 수원 삼성과의 더비 2차전에서 승리로 이어지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팀은 오는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두 번째 수원더비 дер비를 펼친다. 지난 5월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첫 번째 수원더비에서는 수원 삼성이 2-1로 승리했다. 그러나 현재 두 팀은 리그 순위가 곤두박질쳤다. 수원 삼성은 9위로, 수원FC는 최하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양팀 모두가 승리에 대한 의욕이 높다.

선수들의 의지도 두 감독 못지않게는 마찬가지다. 수원 삼성 염기훈은 “지난 수원더비가 축제 분위기 속에 이겨 기뻐다”며 “이번 경기에서도 팬들을 위해 승리를 거두겠다”고 자신했다. 수원FC 김한원은 “수원더비 2차전은 우리 팬들 성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경기를 펼쳐 1차전의 패배를 반드시 설욕하겠다”고 했다.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 입성한 수원FC와 클래식 터줏대감 수원 삼성이 한 도시에서 진짜 더비 시대를 연 가운데 두 팀은 재미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서로가 승리를 자신해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심연규 기자 sims@khiolbo.co.kr

## ‘원정팀’ 수원FC 서포터스 1000명 거리행진

프로축구 수원FC 서포터스와 시민 등 1천여 명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수원더비 2차전이 열리는 10일 깃발 거리행진을 하며 승리를 기원한다.

원정팀인 수원FC는 수원더비 2차전 당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수원 화성 연무대(창룡문)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까지 2.3km 구간을 행진하는 ‘따뜻한 동행, 더비로 가는 길’ 행사를 마련했다. 수원FC 서포터스와 시민 등 1천여 명이 수원FC 깃발을 들고 경기장까지 인도를 이용해 걸

어가며 거리응원을 펼친다. 오후 5시부터 10분간 선수단 사인화와 페이스페인팅, 마스코트 포토타임 등 팬들을 위한 이벤트도 열고, 경품 추첨과 응원가 배우기 시간도 마련했다. 또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기부금은 불우 이웃에게 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수원종합운동장~시청 사거리를 ‘더비의 거리’로 조성해 수원FC와 수원 삼성 구단기 600개를 게양하는 방법으로 수원더비의 흥행을 유도하고 있다. 심연규 기자 sims@khiolbo.co.kr



유로2016의 호날두·웬블던 테니스의 머리 ‘내가 진정 승리했다’이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일(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의 스타드 드 리옹에서 열린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웨일스와의 준결승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한 뒤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호날두는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포르투갈의 결승행을 주도했다. 같은 날 영국 웬블던 테니스대회 10일째 남자단식 8강전에서 앤디 머리(2위·영국·아래 사진)가 조 윌프리트(12위·프랑스)를 5세트 접전 끝 3대 2로 물리쳐 준결승 진출을 확정짓고 하늘을 보며 감격하고 있다. 이번 대회 4강은 머리-토마시 베르디치(9위·체코),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밀로시 라오니치(7위·캐나다)의 대결로 압축됐다. /연합뉴시스

# ‘트랩 1위 결선라운드’ 오른 한형민 3점 차 금메달

## 한화희장배 전국사격 사흘째

한형민(중앙대)이 2016 한화희장배 전국사격대회 트랩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형민은 7일 충북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대학부 트

랩 개인전 결선에서 9점을 쏘 6점에 그친 오세용(서남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형민은 이날 열린 본선에서 104점으로 1위로 결선라운드에 진출한 뒤 준결선에서 오세용과 함께 10점을 기록해 결선에 올랐고, 결선에서 9-6으

로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매달결정전에서는 본선 101점 2위로 결선라운드에 오른 서지수(중앙대)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중학부 트랩 개인전에서는 혼자 출전한 권지후(수원 이목중)가 본

선 합계 89점으로 우승했다. 여자대학부 50m 3자세 단체전에서는 강남대(김수진·전길혜·정지영·이아령)가 1천712점으로 한국체대(1천727점)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여자일반부 50m 3자세 단체전에서는 인천남구청(인혜

상·정은혜·심혜빈)이 1천734점으로 충북 청주시청과 동점을 이뤘지만 10점 수가 66개로 청주시청(80개)보다 적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일반부 50m 3자세 개인전 정은혜(인천남구청·440.4점)와 남자대학부 공기소총 개인전 김경수(인천대·182.7점), 같은 종목 단체전 인천대(1천851.6점)는 각각 3위에 입상했다.

심연규 기자 sims@khiolbo.co.kr

## 포천시민축구단 창단 처음 전국체전 경기도대표 뛴다

포천시민축구단이 지난 6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김포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창단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용인시청과의 준결승에서 2-1 승리를 거둔 포천시민축구단은 결승전에서 김포시민축구단을 만났다. 전반 득점 없이 후반으로 이어진 가운데 첫 골은 김포에서 터졌다. 김포 주명규가 후반 1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후 포천의 계속적인 공격이 이어진 가운데 후반 35분 포천 문진규의 천공같은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1-1 무승부 이후 연장까지 비긴 가운데 승부차기에 돌입한 두 팀은 선축을 한 포천이 6-5 상황에서 포천의 끌기퍼 최안성이 김포의 마지막 킥을 못치게 선방하며 승리를 거뒀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hiolbo.co.kr

## 경기체고 여자유도 전은빈 용인대 총장기 57kg급 제패

전은빈(경기체고)이 2016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남녀중고등학교 유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은빈은 7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여자고등부 57kg급 결승에서 신유리(광주체고)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고등부 66kg급에서는 전승범(의정부 경민고)이 박호현(광주체고)을 제압하며 우승했고, 이 체급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재찬(화성 비봉고)과 이훈(경민고)은 각각 3위에 입상했다. 남자고등부 60kg급 결승에서는 임은준(인천 송도고)이 강영욱(전남 보성고)에게 패해 준우승을, 48kg급 결승에서도 유주희(경기체고)가 정경은(광주체고)에게 져 은메달에 각각 머물렀다.남자고등부 73kg급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현세와 이준선(이상 송도고)도 각각 3위에 입상했다. 심연규 기자

## 성남 U-18 김민규, K리그 주니어 전기리그 MVP

프로축구 K리그 성남FC 18세 이하(U-18) 유스클럽(풍생고)의 김민규가 미래 K리그를 빛낼 올해 전반기 최고의 ‘K리그 주니어’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2016 아디다스 K리그 주니어’ 전기리그의 개인상 수상자와 베스트11을 선정했다.

이 대회는 K리그 23개 구단 산하 U-18 클럽이 A·B조로 나눠 우승자를 가리는 고등 축구리그로 전·후기로 나눠 열린다. 11라운드에 걸쳐 진행된 전기리그에서는 A조 성남 풍생고, B조 울산 현대고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에는 성남 수비수 김민규와 울산 끌기퍼 문정인이 선정됐다. 김민규는 수비 라인을 이끌며 팀의 전기리그 최소 실점을 기여했다. 최우수지도자상 감독에는 부임 첫째 성남을 A조 우승으로 이끈 구상범 감독이 뽑혔다.

U-18 클럽은 오는 22일부터 포항에서 열리는 ‘2016 K리그 U18 챔피언십’에 참가한 뒤 8월부터 후기리그에 돌입한다. 심연규 기자 sims@khiolbo.co.kr

## kt, 마린론 내보내고 대체 우완투수 로위 영입



프로야구 kt 위즈는 슈가 레이 마린론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조쉬 로위(32)를 총액 22만 달러(계약금 5만 달러, 연봉 17만 달러)에 영입한다고 7일 밝혔다. 조쉬 로위는 신장 180cm, 86kg로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우완 정통파 투수다.

미국 독립리그에서 6시즌을 보내고 2014시즌부터 현재까지 멕시코리그 몬톨로바 팀에서 활약했다. 멕시코리그에서 올 시즌 7월 현재까지 13승3패 방어율 1.65로 다승, 방어율, 탈삼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kt 위즈 관계자는 “평균 140km 중반대의 힘 있는 패스트볼과 커브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투수로, 후반기를 앞두고 투수력 보강을 위해 영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팔꿈치 부상을 당한 마린론은 회복 및 재활기간과 잔여 경기 일정을 고려했을 때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심연규 기자

## 오늘의 경기

◇8월(금) ▶프로야구-KIA-두산(잠실) kt-SK(문학) LG-롯데(사직) NC-넥센(고척) 삼성-한화(대전·이상 오후 6시 30분) ▶골프-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강원도 바치힐 골프장) ▶야구-제1회 청룡기 고교선수권대회(오전 10시·목동야구장) ▶테니스-제2차 김천국제 남자 퓨처스·여자 서킷대회(오전 9시·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실업축구-경주-부산(오후 6시·경주시민운동장) 울산-대전(울산종합운동장) 김해-강릉(이상 오후 7시·김해종합운동장) ▶양궁-제19회 한국 대학연맹회장기 대회(오전 8시 30분·광주예대) ▶요트-제4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대회(오전 9시·경남 통영시 및 고성군) ▶궁도-제18회 전주시장기 및 전주천양정 제55회 전국남녀대회(오전 11시·전주 천양정) ▶근대5종-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대회(오전 7시 30분·전남 해남) ▶사격-2016 한화희장배 전국대회(오전 9시·충북 청주종합사격장)



# 큰 나무, 큰 사람



## 수백 년 거쳐간 가지각색 사연... 그네들 추억을 먹고 쏙쏙

### 7. 장수동 만의골 은행나무

누군가의 애달픈 인생 이야기가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곳에 뿌리내린 사연들은 깊다. 배산임수(背山臨水) 뒤는 산이요, 앞은 물인지라 그 속에서 묻어나는 곡절들은 웅골지다.

거기에 나이를 가능할 수 없는 굵은 거목(巨木)의 그림자처럼 그 긴 세월이 우러 낸 속사정들도 짙다. 그 얘기 타래의 한가운데에는 키 30m, 둘레 8.6m의 800여 년 묵은 은행나무(인천시기념물 제12호·남동구 장수동 63-6)가 서 있다.

장수동(長壽洞)은 원래 장자골(壯者里)과 만의골(晩宜里), 무념이(水越里) 등 3개 마을로 이뤄진 동네다. 은행나무가 있는 마을이 만의골이다.

그 이름의 사연 또한 이채롭다. 만의골은 뒤에 외곽순환도로가 뚫고 간 거마산(巨馬山·해발 209m)과 앞에는 인천대공원 안관모산(冠官帽山·162m)·상아산(象牙山·151m)으로 둘러싸인 ‘느직한 골짜기’다. 그래서 ‘느직골’이라고도 불렸다. ‘느직하다’를 한자로 풀어내면서 ‘늦을 만(晩)자’를 받았다는 설이 있다. ‘의(宜)’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별 뜻 없이 붙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도 있다. 만의골의 형세는 산속 요새와 닮았다. 고려와 조선시대부터 군부대가 있었다. 그 부대장의 별호가 ‘만호’였다는 것이다. 만호골이 만이로 변했고, 또다시 만의로 바뀌었다는 설이다.

만의골에는 지금도 특수부대인 9공수가 있다. 본디 장수동의 장수는 긴 수명을 뜻하는 ‘長壽’가 아니었다. 힘 센 장정을 말하는 ‘장(壯)자’에다가 수월리의 ‘물 수(水)’를 써서 ‘장수동(壯水洞)’이었다.

역시 곡절이 빚어낸 지명이다. 장수동은 옛날부터 먹고살 만한 마을이었다. 1910년대 일본인이 만든 지도를 보면 또렷하다. 거마산 바로 밑 만의골에서 무념이 마을을 타고 만수6동 담방마을까지 너른 논이었다.

그 논은 수산동을 거쳐 서창동까지 이어졌다. 인천대공원 후문으로 가는 진입도로 인근에 추어탕 집들이 몰려 있는 까닭도 이 드넓은 논 때문이다. 30여 년 전 논에서 잡은 마꾸라지를 탕으로 끓여 먹던 이들이 가게를 내면서 10여 군데의 추어탕 가게 촌으로 번진 것이다.

웬만큼 사는 장수동 사람들은 구월동과 남촌동에 땅을 갖고 있었다. 가을 추수 시기가 되면 부잣집 때문으로 이어지는 우마차 행렬의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였다. 나라 살림이 궁궁해지자 지방에는 도적떼가 활개를 쳤다. 넉넉했던 장수동이 표적되는 일은 시간문제였다. 어느 날 동네 주막에 수상쩍은 장정들이 술판을 벌이며 일어서지 않는 것이었다. 주모는 남편을 시켜 이 사실을 동네 청년들에게 알렸다. 아나나 다를까. 어스름한 밤기운이 퍼지자 이 장정들은 부잣집을 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해댔다. 이때 동네 청년들이 나타나 도적들을 잡아 포도청에 넘겼다. 이때부터 마을은 힘 센 사람을 의미하는 ‘장자(壯者)골’로 이름 지어졌다.

‘무념이’의 사연도 깊다. 부평구 황굴(일신동)로 이어지는 외

너른 ‘부자마을’ 인식 탓 임진왜란 후 도적떼 표적 청년들 직접 소탕 이후 힘센 장정 의미 ‘壯水’라 불려 나무 있는 만의골은 관모산 느직한 골짜기서 이름 따

인천대공원 호수는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성과물 34만여 ㎡ 규모 바닷물 저수지에 매립 후 대신 조성 장수천 끝자락 소래습지생태공원은 1960년까지 염전 수인선 협계열차도 소금 실어나르기 위해 만든 산물

곽순환도로의자리가 무념이 고개다. 조선 중종 때 권신 김안로가 제안한 경인운하 공사를 벌였으나 실패했다. 순조롭게 나아가던 부평 뜰의 땅파기는 간석오거리에서 부평가죽공원으로 넘어가는 원통이 고개에서 짝 막혔다. 커다란 암반이 박혀 있던 탓이다. 김안로는 땅을 치며 원통(冤痛)해 하다가 물길을 돌려 땅을 파기로 했다. 황굴에서 9공수를 지나는 외곽순환도로 고갯길이다. 하지만 그곳 역시 땅속에 큰 바위들이 묻혀 있어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다. 파낸 고개로 물이 지나간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무념이골, 수월리(水越里)였다.

부평구 일신동 황굴로 넘어가는 재는 무념이 고개 말고 또 하나 있다. 만수동 쪽으로 이어지는 고갯길이다. 이 재의 이름은 ‘별리현(別離峴)’, ‘별루현(別淚峴)’. 비루 고개다. 그 옛날 서울에서 따라와 이곳 비루 고개에서 이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비루 고개의 연유다.

장수동 은행나무 앞에는 지금도 개울이 지나가고 있다. 이 냇물은 인천대공원 호수로 흘러들어 간 뒤 장수천을 따라 소래 갯골로 빠진다. 인천대공원의 호수는 말쑥이 떨어진 남구 학익동 OCI(옛 동양제철화학)와 인연이 닿아 있다. 4만6천200㎡에 이르는 이 호수에는 100억 원가량 OCI의 돈이 들어 있다. 사연은 이렇다. 2003년 12월 31일 인천시·남구·OCI·폐석회



1 인천대공원 호수. 2 장수동 은행나무 앞 안내문. 3 소래습지생태공원 염부들이 천일염을 채취하고 있다.

적정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 등 4자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OCI의 폐석회 전량을 지금 체육공원으로 꾸미고 있는 바닷물 저수지(34만6천596㎡)에 모두 매립한다는 내용이다.

OCI의 폐석회는 범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천의 해독은 골칫덩어리였다. OCI 인천공장은 1968년부터 석회석과 소금을 원료로 소다회를 독점 생산하면서 부산물인 폐석회 수백만㎡를 쌓아 놓고 있었다. 40여 년 가까이 발생한 폐석회 양은 땅속에 묻힌 116만㎡를 포함해 모두 596만㎡에 달했다. OCI가 폐석회 매립으로 없어지는 바닷물 저수지 대신 인천대공원 호수를 지금의 모습으로 단장한 것이다.

장수천의 끝자락은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닿는다. 지금이야 공원으로 조성됐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염전이다. ‘잔물’ 인천의 태동과도 무관치 않다.

일제 때 남동구(남촌면)에는 공동 운영하던 제염소를 포함해 총 25명의 제염업자와 24군데의 제염소가 있었다. 인천 전체 염전의 총면적은 34만6천717㎡였고, 염전은 281개였다. 남촌면의 소금 생산량은 인천부 전체 생산량 215만4천780kg의 54%인 116만3천581kg이었다. 남동염전 300만㎡(1.3구)는 1920년 9월에 시작돼 1921년 준공됐다. 또한 1921년 4월에 시작한 남동염전 2구 105만㎡는 그해 12월에 준공됐다. 투입된 예산은 80만347원이다.

남동염전이 조업을 시작한 1922년 당시 근무자는 관리자를 빼고 모두 283명이었다. 염부장 13명과 염부 270명이다. 소래염전 1구와 2구는 1934년 6월에, 3구는 1935년 1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지금 남동구 서창동 앞에 1구인 140만㎡를, 시흥시 월곶 북쪽 갯벌 2구인 216만㎡, 시흥 방산동과 포동 앞에 3구인 193만㎡를 조성했다.

남동염전은 ‘꼬마 열차’라 불리던 수인선 협계열차가 기적 소리를 만들어 냈다. 조선경동철도(현)는 1935년 9월 23일 착공한 수인선 수원역~남인천역 간 52km의 부설공사를 2년 만에 끝냈다. 소금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였다. 1970년 인천시는 남동염전을 매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1970년대 중반 수출산업 7공단 건설은 남동염전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1985년 시작해 1992년에 끝낸 760만3천340㎡의 남동공단 조성의 전조였다. 소래 염전 1구는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됐다.

글=박정화 기자 hi21@khihoilbo.co.kr.

사진=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바리스타가 되고픈 장애학생들이 7일 인천시 남구 관교동에 위치한 예비 사회적 기업 씨드 바리스타 교육장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곳은 장애학생들의 실습과 직업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복나눔터로 개소하기로 2014년 인천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지만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무산됐다. 최만규 기자 cmg@kihoilbo.co.kr

인천시교육청, 행복나눔터 카페 ‘직업교육의 장’ 달력 철회

## 장애학생 ‘바리스타의 꿈’ 와르르

‘사회적 무관심’에 설 자리 좁아지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소망(가명·21)씨의 꿈은 바리스타다.

소망 씨의 엄마 김모(48)씨는 그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인천시 남구 관교동에 위치한 예비 사회적 기업 씨드(SEED:SEE the children's Dream)를 찾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게 아주 단순한 것도 끊임없는 인내와 반복 훈련이 필요한데 이곳에서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일반 시설 등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 가 봤지만 직업교육이 아닌 그저 재미를 위한 일회성 체험학습일 뿐이었다.

이런 면에서 씨드는 인천시장에 인부모회가 함께 하는 곳이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다.

하지만 소망 씨가 꿈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소망 씨와 같은 발달장애인을 어엿한 ‘직업인’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소망 씨와 함께 교육을 받던 두 친구가 바리스타 꿈을 포기했다. 이들은 얼마 전 미싱 보조와 다림질 담당으로 취직했다.

김 씨는 그날 배운 내용을 서둘러 계나마 자랑하는 딸을 보면 꿈을 지켜주고 싶지만 기약 없는 길을 계속 걷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다.

교육청, 외부업체 문제 등 핑계

교육 받던 이들 실습 기회 잃고

다림질 담당 등 다른 길 선택해

씨드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이다. 장애학생 직업교육과 취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 설립됐다.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인천시교육청과 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토대로 씨드는 지역 내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시교육청은 현장실습의 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카페 ‘행복나눔

터’를 개소하자고 먼저 제안하면서 협약이 실현되는 듯했다.

씨드는 행복나눔터를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닌, 발달장애 학생들의 실질적인 직업교육의 장소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외부 업체와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최종 무산됐다. 현재 행복나눔터는 미추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씨드 박대성 대표는 “발달장애인은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아닌 ‘자립할 수 있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본인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직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아직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혜연 기자 khy@kihoilbo.co.kr

면세담배·농수산물 밀수입 보따리상 24명 불구속 입건

인천항 여객터미널 물품보관함 등을 이용한 밀수입<본보 2016년 3월 2일자 19면>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중국에서 담배와 농수산물을 밀수입한 보따리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3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밀수 유해식품 특별 단속’을 벌여 담배사업법과 관

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따리상 조모(54)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씨 등은 한중 카페리 여객선을 이용해 중국산 건고추·녹두 등 9종의 농산물 14t과 참기름 260L를 밀수한 혐의다.

또 다른 보따리상 성모(54)씨 등은 면세담배 2만1천600갑(1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따리상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물품 등을 모점책을 통해 수집해 ‘신문사 지국’으로 가장한 창고에 보관하고, 전국 각지에 택배 등을 이용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해 인천항 여객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밀수품을 보관하다 단속 이후 시간에 물품

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 등 보따리상들은 경찰에서 “5~6년간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집중 단속으로 농수산물과 면세담배 밀수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강력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 “센시티 15km 내 상권 매출 뚝 떨어질 것”

<부천 복합쇼핑몰>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간담회서 쇼핑몰 저지 비대위 주장  
“인천종합어시장까지 피해 영향권”… 대기오염 가중도 지적

부천시와 신세계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부천영상문화단지(가칭 센시티)’가 조성되면 반경 15km 내 전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지역 상인 보호대책을 약속<본보 7월 7일자 19면 보도>한 뒤 나온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인천시 부평구청에 열린 ‘제1차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이 주장했다.

신규철 위원회 인천대표는 “대형 마트가 안 들어선다고 해도 센시티 개발의 속내는 결국 복합쇼핑몰 입점에 있다”며 “땅을 매입하는 기업(신세계 컨소시엄)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호텔,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전국의 유사 사례로 볼 때 출점 3년 후 인근 상권의 매출이 46%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특히 영업이익 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음식점(-79%)을 비롯해 의복·신발점(-58%), 가정용품점(-51%), 이·미용점(-47%), 식료품·담배점(-43%) 등 전 업종에 걸쳐 매출 감소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입점지역 반경 3km 내 상권영향평가는 대형 마트가 미치는 범위에 불과하고, 복합쇼핑몰은 부평구·계양구를 포함해 반경 15km까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주장했다. 짧게는 남동구 모래내시장(5.9km)에서 길게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13.4km)까지 피해 영향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다.

여기에 입점지 인근 중동나들목 일대의 교통영향평가가 ‘F등급’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센시티까지 들어서면 이 일대 교통난 가중(F등급 하락)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여소야대 정국을 적극 활용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통해 상권이 겹치는 행정구역의 경우 인접 지자체·상인회·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대기업·소상공인 상생협약에 인접 지역 상인을 포함시킬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인접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법제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 사회적기업협, 市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제공고 지연 지적

## “자격 없는 업체에 보완할 시간 주려는 의도”

“센터장의 전 직장 법인 편들기 행위”… 조속 추진 촉구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시를 상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즉각적인 민간위탁 제공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특정 업체의 입찰자격 요건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제공고를 미루고 있다<본보 7월 1일자 19면 보도>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시에 전달했다.

인천시 남구와 남동·연수·부평구 등 6개 기초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시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센터 민간위탁 공고에 내정설이 나돌면 A법인이 응찰했으나 입찰자격 미달로 공고가

유찰됐다”며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의 통상 관례처럼 입찰결과 발표 예정일인 지난 4일 즉시 제공고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해당 주무부서의 인사이동과 제공고 전 심사기준 및 배점표 재설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제공고 지연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인사이동과 무관하게 행정업무는 공백없이 신뢰 속에 처리돼야 맞고 ▶심사위원 선정 방식 및 실적 배점 등 재설계 내용은 여차피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제공고 업무는 사회적경제육성위와 무관한 시의 고유한 행정사무라는

점 등을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김연평 협의회 대표는 “시의 제공고 지연 내지 해태 행위는 현 센터장이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A법인을 (또 다른 신청자격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기금 자격 요건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최대한 주려는 의도”라며 “자격도 역량도 없고 사회적 경제와 무관한 단체로의 무리한 수탁은 ‘공무원 입찰 관련 청렴 중립 의무’ 위반으로, 노골적이고 부끄러운 편 들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들 주장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 역시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연락을 두절한 상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창간 **28** SINCE 1988  
주년을 축하합니다.

# 28년을 한결같이

28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호흡하는 기호일보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울곧은 생각으로 경인 지역의 새로운 언론의 지표를 이룩하신  
기호일보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더 따뜻하고, 더 진실되고, 더 배려하는** 언론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디에스**

www.inu.ac.kr

# 지역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국립 인천대학교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국립 인천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허브 송도국제도시에서  
최첨단 캠퍼스와 선도적인 국립대학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대학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